

Style 1 조선일보

OCTOBER vol.82

Special
STORY

한국의 의자,
특별한 오브제가 되다



WWW.AGNONA.COM

CHANEL



SUBLIMAGE
LA CRÈME YEUX

CHANEL



CHANEL



SUBLIMAGE
LA CRÈME YEUX

CHANEL



SKYFALL

007^F

IN CINEMAS



JAMES BOND'S CHOICE.



SKYFALL ©2012 Danjaq, United Artists, CPl: 007 and related James Bond Trademarks, TM Danjaq.

청담 부티크 02 511 5797 • 신세계 강남점 02 3479 6025 • 롯데 잠실점 02 2143 7266 • 현대 무역센터점 02 3467 8632
현대 목동점 02 2163 1283 • AK플라자 분당점 031 708 5520 • 현대 대구점 053 245 2249 • 현대 부산점 051 667 0417



www.omegawatches.com

Ω
OME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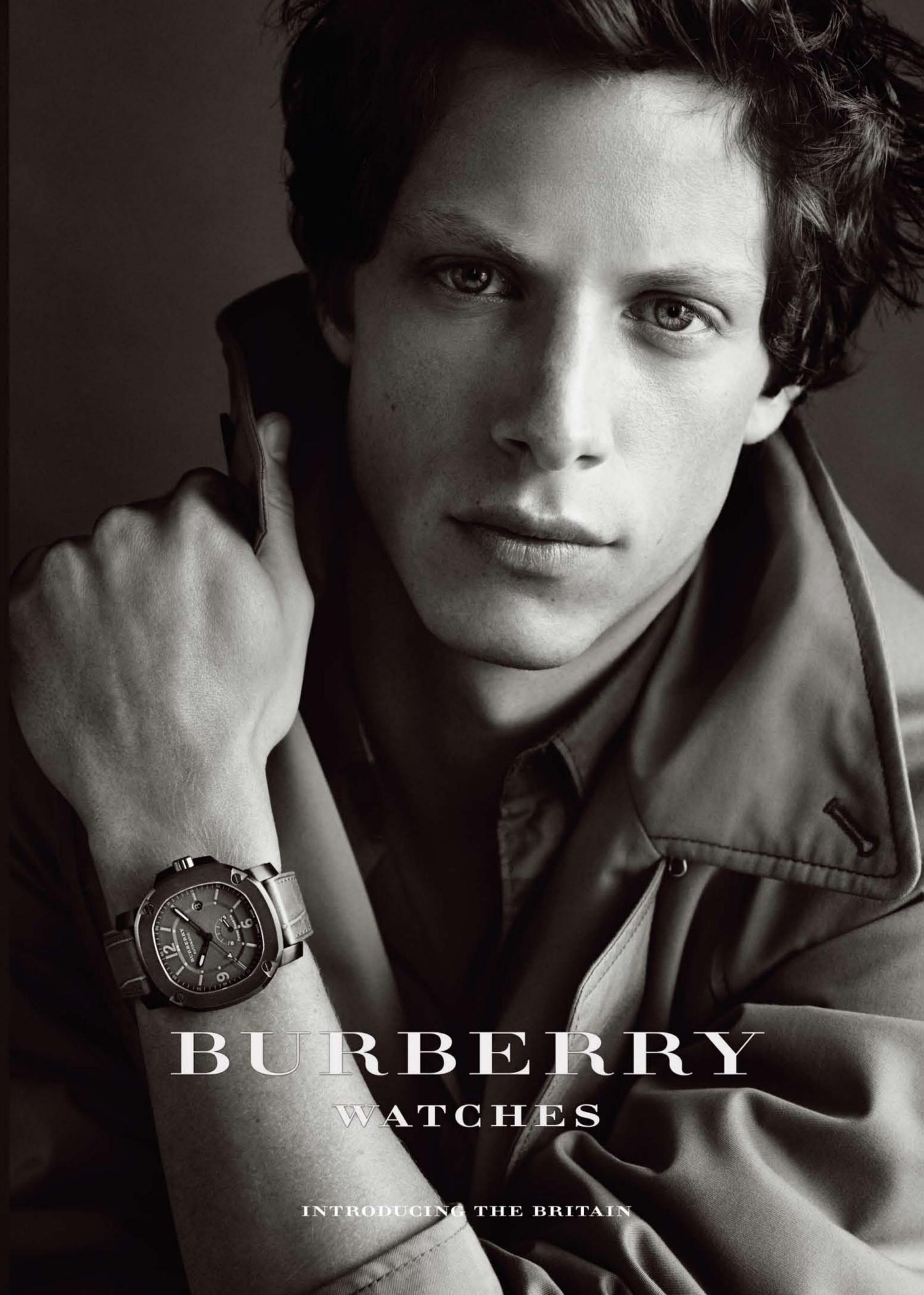
GUCCI





CÉLINE

BURBERRY.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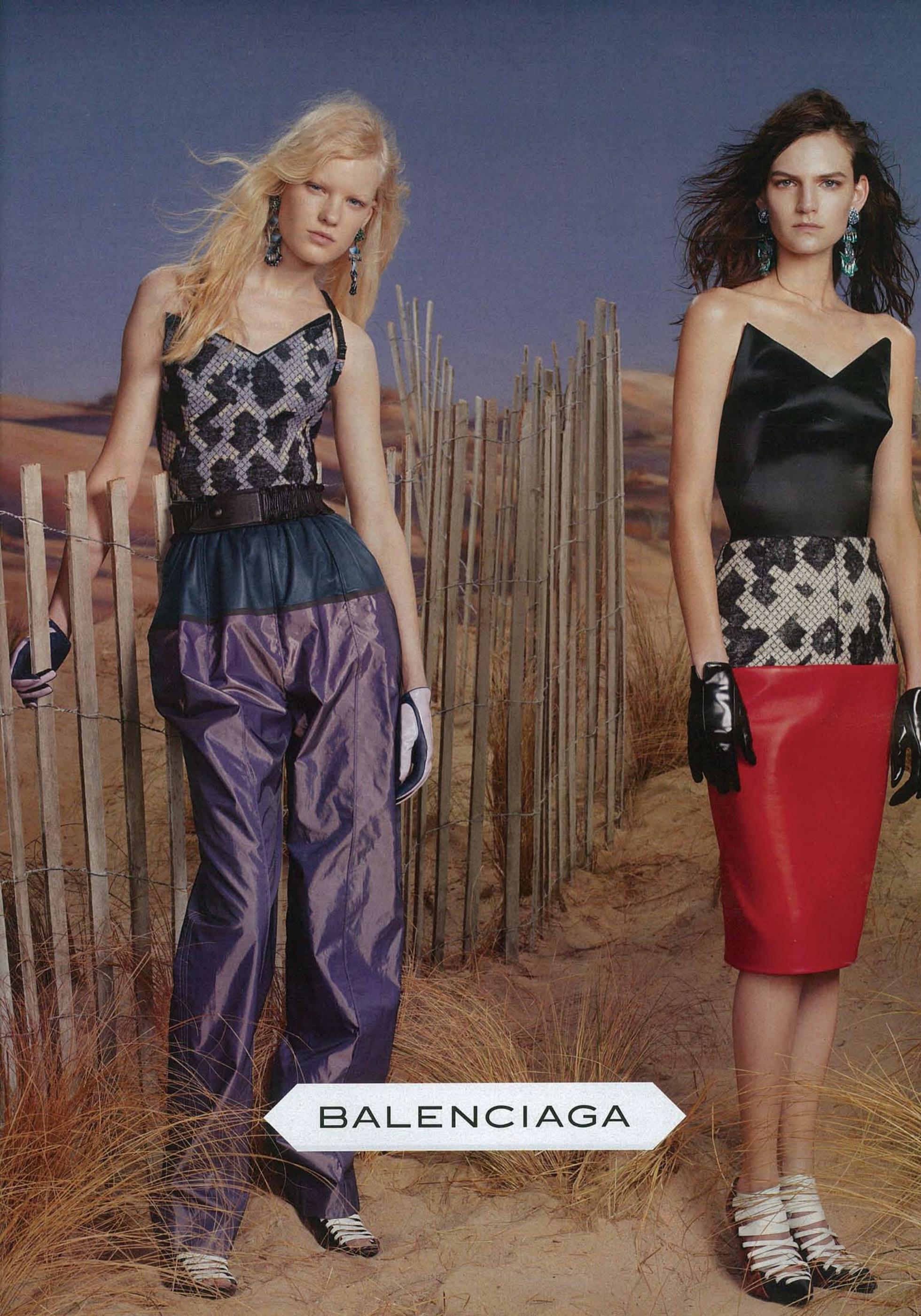


BURBERRY

WATCHES

INTRODUCING THE BRITAIN





BALENCIAGA



68

24



표지에 등장한 모델이 입은 코트는 이탈리아 럭셔리 브랜드 아노나의 화이트 캐시미어 니트 코트다. 아노나는 최고급 소재를 사용해 모던한 감성으로 재해석한 니트 코트로 럭셔리 어번(Luxury Urban) 룩을 제안한다. 상단을 펠트로 처리한 화이트 캐시미어 니트는 특유의 유연한 조직감으로 자연스럽게 피트되는 것이 특징이며, 코트 아랫단에는 페르시안 양털을 넓게 트리밍해 럭셔리한 무드를 더했다. 문의 02-3438-6070



52



18

- 16 **INSIGHT**
- 18 **SELECTION**
- 24 **XAVIER VEILHAN** 프랑스 현대미술계의 '총아' 자비에 베이랑의 작품 세계.
- 26 **LIGHT SPIRIT** 시간을 움직이는 가장 혁신적인 울트라 신 워치.
- 28 **BLOOMY DAY** 오랜 역사와 고귀한 원료로 완성한 하이 주얼리.
- 30 **TIMELESS BEAUTY** 브랜드의 스테디셀러, 안티에이징 아이템.
- 32 **PRESTIGE ZONE** 럭셔리 웨딩 뷰티 케어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프레스티지 코스메틱 컬렉션.
- 34 **BOTTLED ROMANCE** 달콤하고 신선한 향기의 향수 컬렉션.
- 36 **NATURAL WONDER** 원료의 재배, 가공 단계에서부터 일체의 화학 성분을 배제한 유기농 화장품을 소개한다.
- 38 **HIGH DRAMA**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주얼리 브랜드 불가리의 찬란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
- 40 **THE NEXT STEP** 우아한 원피스에도, 포말한 펜슬 스커트에도 매치할 수 있을 만큼 감각적인 랑방 컬렉션의 하이톱 스니커즈.
- 42 **ART OF TRAVEL** 샘소나이트가 예술의 혼을 담은 트렁크 시리즈를 공개한다.
- 44 **CLASSIC CHIC** 새로운 디자인과 풍부하고 깊은 컬러로 더욱 우아하고 럭셔리해진 모습으로 가을의 문을 연 F/W 토즈 여성 컬렉션.
- 46 **URBAN LEGEND** 우아함, 절제된 럭셔리, 흡집을 데 없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브랜드, 토즈의 남성 슈즈 이야기.
- 48 **MOST WANTED** 한남동에 오픈한 멀티 액세서리 스토어 코브누아의 액세서리 컬렉션.
- 50 **RED PASSION STORY** 레드 아이콘 김윤아와 함께 클래식한 아름다움을 담은 닥스의 2012 F/W 룩.
- 52 **FALL'S BEST LOOKS** 빅 브랜드의 2012 F/W 컬렉션이 새로운 시즌을 일린다.
- 60 **ALL NIGHT LONG** 단 5분의 투자로 잠든 시간 동안 더욱더 촉촉해질 수 있는 나이트 안티에이징 제품.
- 61 **FUTURE SKIN** 올가을 강력한 안티에이징 성분으로 초기 노화를 예방하는 '아모레퍼시픽 퓨처 레스폰스 에이지 디펜스 세럼'에 주목하자.
- 62 **DOUBLE ACTION PERFECT** 특별한 천연 성분을 피부 깊숙이 전달하는 클라란스의 안티에이징 세럼, '더블세럼'을 소개한다.
- 64 **THE BODYGUARD** 보습력이 뛰어난 보디로션부터 리프레시 효과가 있는 보디 미스트, 슬리밍 제품까지, 보디 케어 아이템.
- 65 **FALL IN SCENT** 뿌리는 순간 생기 넘치는 베리의 밝고 신선함이 전해지는 조 말론 런던의 신제품, '블랙베리 앤 베이'.
- 66 **FIELD OF KOREAN CHAIR**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의 감각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의자 이야기.
- 68 **SEZZ SAINT-TROPEZ** 프랑스 생 트로페의 매력을 고스란히 담은 세즈 생 트로페 호텔을 엿본다.

Style 조선일보

Issue.82 october 2012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석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뷰티 에디터 | 배미진 mijin@chosun.com 권유진 yjkwon@chosun.com
 이예진 yejin.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chosun.com 교열 | 이정현
 광고·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조통일 cti@chosun.com 재무 | 이민희 mhlee@chosun.com 분해·제판 | ING PROCESS
 인쇄 | 타라티피에스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805 현대 하이패러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5·8·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갤러리아 명품관 이스트 02 514 0652 현대 백화점 양주점 본점 신세계 백화점 서울점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현대 백화점 본점 현대 백화점 잠실점
롯데 백화점 대구점 현대 백화점 대구점 현대 백화점 부산점 롯데 백화점 광복점 신세계 백화점 센텀시티점 051 745 1245 FENDI.COM



FEND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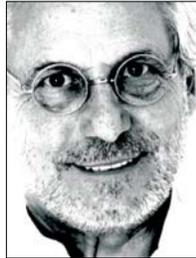


Jewel THE BEAUTY OF PEARL

순수하고 섬세한 아름다움의 결정체, 진주 컬렉션.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옐로 골드 바에 진주를 얹은 미니멀한 디자인의 밸런스 네크리스 5백50만원 **타사키**, 옐로 골드에 최상급 아코야 진주를 일렬로 세팅한 밸런스 링 2백70만원대 **타사키**, 클래식한 디자인의 아그라프 컬렉션 필 이어링 2천6백만원대 **까르띠에**, 진주 및 버터플라이를 사용해 만든 아름다운 꽃 브로치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가장 값진 핑크 컬러 진주를 사용한 오와즈드 파라디 롱 네크리스 가격 미정 **반클리프 아펠**, 철조망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에 흑진주를 세팅한 미하라 아스히로 by 타사키 컬렉션 링 80만원대 **타사키**, 브랜드의 상징인 트리니티 링에 진주를 세팅한 트리니티 팔링 4천3백만원대 **까르띠에**, 에디터 **배미진**

Living 예술과 과학을 담은 리빙 퍼퓸



몸에 향수를 뿌리듯 공간에도 향의 아이덴티티가 필요하다. 냉랭했던 공간도 따뜻하게 연출하는 향의 힘은 공간의 이미지를 바꿀 만큼 크고 강하다. 이처럼 공간 연출에 향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향초나 디퓨저, 룸 스프레이 등의 홈 프래그런스 제품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쉽게 맡을 수 없는 고급스러운 향과 갤러리의 아름다운 조형물을 연상케 하는 보틀 디자인으로 나만의 공간을 특별하게 채워줄 리빙 퍼퓸을 찾는다면 1백15년의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프랑스 리빙 퍼퓸 브랜드 램프 베르제(Lampe Berger)에 주목하자. 화가 피카소가 '최고의 지적인 향기'라고 칭송해 더욱 유명한 램프 베르제는 전 세계에 약 5천 개 이상의 매장을 둔 유서 깊은 브랜드. 이리마 향초처럼 불을 붙여 사용하는 홈 프래그런스로 최고의 조형사가 제조한 40여 가지의 향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 향초나 디퓨저와 다른 점은 심자에 불을 붙여 향을 내는 버너 방식의 리빙 퍼퓸이라는 것. 또 단순히 향만 내는 것이 아니라, 냄새 원인 물질과 유해 세균을 없애주는 과학적인 기술을 갖췄다. 더욱 특별히 눈여겨봐야 할 제품은 세계적인 디자이너 파스칼 모라비토와 콜라보레이션해 완성한 아트 에디션. 3대째 이어져 내려오는 이탈리아 금세공 기원의 장인이자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보석 디자이너 겸 예술가인 그는 코브리를 모티브로 한 리빙 퍼퓸을 제작했다. 메탈 소재의 모던한 디자인, 코브리를 형상화한 줄무늬가 특징으로 겁에 질린 먹이를 향해 어둠 속에서 웅크린 코브리를 모티브로 해 예술 작품을 방불케 한다. 램프 베르제 리빙 퍼퓸은 램프에 불을 붙이고 2분 정도 기다린 후 불을 끈 다음 마개로 덮으면 은은한 향기와 함께 공기 정화 기능을 발휘한다. 가격은 9만원대부터 1백70만원대까지. 문의 02-3443-2943 에디터 **권유진**



Beauty HAND MOIST

가을로 접어들어 얼굴이 땅기는 것은 물론 손 역시 가칠고 건조해진다. 오래도록 촉촉하고 끈적임이 없이 산뜻한 데다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 노화까지 막아주는 똑똑한 핸드크림을 소개한다. **이모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인텐시브 핸드 리뉴얼 크림**은 그린티 사포닌, EGCG, 그린티 스템 셀로 이루어진 어드밴스드 타임 레스폰스 콤플렉스™를 함유해 탄력 있고 매끈한 손 피부로 가꿔준다. 체온에 의해 부드럽게 녹아 빠르게 흡수되며 피부 조직과 유사한 라멜라 구조를 형성해 연약한 손등에 보호막을 형성한다(30mlX3개입 8만원). 한방 핸드크림인 **설화수 연성 핸드크림**은 해수자유, 연자유, 동백유, 매실유, 향인유로 구성된 5가지 천연 유래 한방 오일 조합체가 메마른 손 피부에 풍부한 수분을 부여해 24시간 이상 보습과 윤기를 유지해준다. 또 핵심 성분 중 하나인 죽곡 성분이 피부를 촉촉히 채워 탄력을 주고 피부 톤을 환하게 가꿔준다(100ml 3만5천원대). **비오렐 비오렐 핸드크림**은 브랜드의 시초가 된 제품으로 뛰어난 보습력과 함께 피부의 자연적인 보호막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노화를 방지하고 잡티 형성을 예방하며 손톱을 튼튼하게 해준다(100ml 3만원). 럭셔리한 텍스처가 돋보이는 **에스티 로더 리-뉴트리브 인텐시브 스무딩 핸드크림**은 건조하고 예민한 손과 손톱의 큐티클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케어한다. 끈적이지 않는 부드러운 텍스처로 손을 씻고 난 후에도 피부가 촉촉하게 유지되는 것이 특징이다(100ml 5만5천원대). **샤넬 바디 엑셀랑스 너리싱 앤 리즈네이빙 핸드크림**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손 피부의 보호력을 강화해주는 크림으로 퍼플 벵글 PFA 성분이 피부의 탄력을 높이고, 카시아 앙구스티폴리아 씨앗 추출물이 8시간 동안 피부를 유연하고 촉촉하게 유지시킨다. 또 건조한 큐티클 생성을 예방하고 건조 추출물이 다크스팟의 형성을 막아 피부를 맑고 투명하게 가꿔준다(75ml 8만원). 에디터 **권유진**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Exhibition 거장의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찰나들 <빛과 어둠 사이>

'진실의 순간'을 다루는 포토 저널리스트 스티브 맥커리(Steve McCurry)의 사진전이 '빛과 어둠 사이(Between Darkness and Light)'라는 주제로 10월 21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 V갤러리에서 개최된다. 맥커리는 1985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표지를 장식한 '푸른 눈의 아프간 소녀'라는 작품으로 세계의 시선을 사로잡은 인물. 팬들의 열화와 같은 요청으로 17년 뒤인 2002년엔 여인이 된 소녀를 찾아가 다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인간과 삶에 대한 따스한 눈길을 느낄 수 있는 1백 점의 작품을 소개하는 이번 전시(어반아트 주최)는 테크니거나 인위적인 장식을 배제하고 빛과 어둠만을 활용한 '질제의 미학'을 통해 작가의 예술적인 면모에 초점을 맞췄다고, 다양한 예술가를 지원하는 루이 비통의 아티스트 중 한 명이기도 한 맥커리는 최근 방한 인터뷰에서 "구성이나 빛, 각도 등 촬영의 요소가 있지만 마음을 움직이는, 삶이 느껴지는 정서적인 요소를 가장 중시한다"며 인간적인 교감에 충실한 자신의 작품 철학을 설명했다. 지구촌 곳곳을 누비며 죽을 뻔한 고비를 수차례 넘긴 이 60대의 사진가는 "세계를 돌아다니며 여행을 하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문화를 체험하는 일을 사랑한다"며 웃음 지었다. 루이 비통이 주최한 대담인 '아트 토크'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포착해 찍으면서도 작가의 주관적인 관점을 반영하는 게 가능할까? 그리고 그 사진이 여전히 진실성을 담고 있는 게 가능할까"라는 물음을 던지고는 "난 그렇다고 믿는다"고 힘주어 말하기도 했다. 자신의 일은 바로 그러한 진실된 '순간'들을 낚아채는 것이라며 눈을 빛내는 노장의 미소는 '평범하면서도 특별한 찰나들'을 공유하고 싶게 만든다. 문의 02-511-2931, www.urbanart4u.com 에디터 **고성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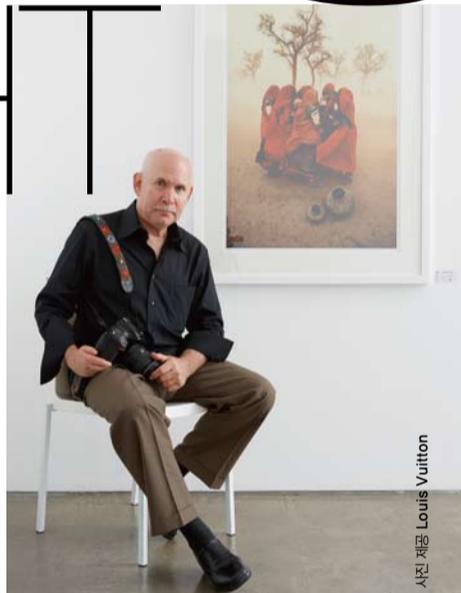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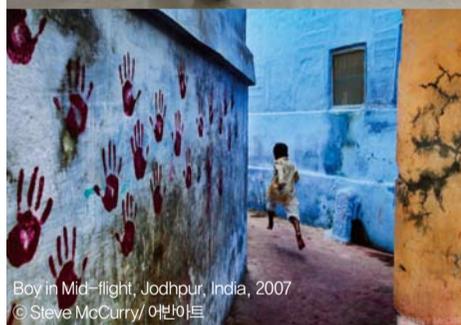


사진 제공 Louis Vuitton



Boy in Mid-flight, Jodhpur, India, 2007 © Steve McCurry/어반아트



Kohei NAWA | 고키에이 나와 | PixCell-Deer#24 | 202X182X150cm

Art 미술계의 큰 장터이자 잔치 KIAF 2012

아시아 미술계의 큰 잔치 한국국제아트페어(KIAF)가 올해도 어김없이 수많은 '아트 러버'들의 눈길과 발길을 사로잡았다. 지난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KIAF 2012에서는 국내외 1백81개 회관에서 출품한 5천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는데, 이 중 페르난도 보테로, 해수스 라피올 소토와 같은 대가들을 앞세운 해외 주빈국 '남미 대륙' 부스가 단연 주목받았다. 과장되지만 재치 있는 인물 묘사로 인기 만점인 콜롬비아 출신의 작가 보테로는 빨간색 원피스 차림으로 집에 들어서는 여인의 모습을 담은 'Mujer entrando a su casa'란 작품으로 이번 행사의 최고가 '톱 5' 대열에 올랐다(Galeria La Cometa). 크리스털 구슬로 뒤덮인 박제 동물인 시선을 잡아끄는 픽셀(PixCell) 시리즈도 인기였다. 떠오르는 일본 미술계의 별 고키에이 나와의 대표작이다(아리오갤러리). 올해 처음 참여한 프랑스의 갤러리 페로탱과 이번 KIAF 최고가 작품으로 추정되는 루치오 폰타나의 작품을 들고 나온 영국의 이마고갤러리 등 해외 유명 화랑들이 품격을 높였다는 평가다. 또 김수자, 양혜규 등 국내 스타 작가들을 선보인 국제갤러리, 줄리언 오피와 자비에 베이앙 등 유럽의 '블루칩'을 소개한 313갤러리, '동심의 작가' 안운모 화백을 내세운 문화랑 등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했다. www.kiaf.org 에디터 **고성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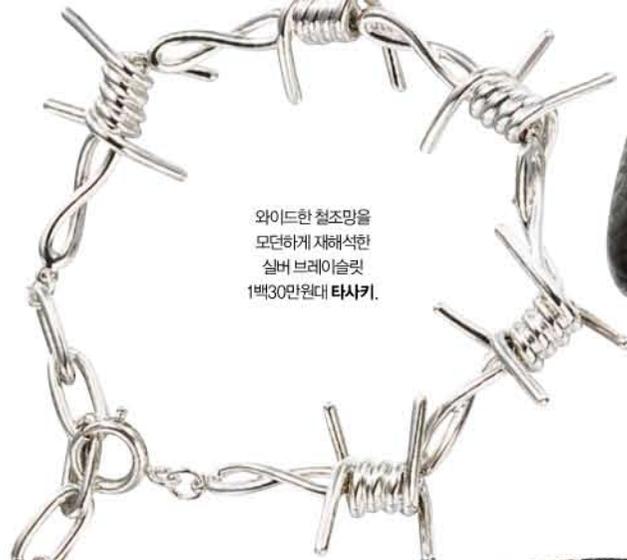
+822 3443 2323 prada.com

PRADA





블랙 스타드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아이패드 캐리어. 22X27cm, 4백61만원 **펜디**.



와이드한 철조망을 모던하게 재해석한 실버 브레이슬릿 1백30만원대 **타사키**.



레오파드 무늬가 세련된 양모 장갑 95만원 **돌체앤가버나**.



알리게이터 가죽이 럭셔리한 클러치. 23X12cm, 8백20만원대 **루이비통**.



보이시한 보잉에 레이스 패턴으로 여성스러움을 가미한 선글라스 68만원 **돌체앤가버나**.

for her Selection

남성적인 성향을 지닌 강인한 파워 우먼 룩이 새로운 트렌드로 떠올랐다. 클래식한 남성복이 영감의 원천으로 등장한 것. 완벽하게 재단한 수트, 멋스러운 페도라, 여성을 위한 타이까지 매니시한 감성이 묻어나는 여성 아이템. *photographed by hong sung eun*



'파스' 장미바느질로 고급스러운 100% 양모를 사용한 클래식한 페도라 1백80만원 **버버리**.



브라운 컬러의 레이시드 슈즈 1백80만원 **버버리**.



화려한 프린트와 구조적인 디자인이 돋보이는 팬츠 가격 미정 **발망**.



모던하면서도 정당한 무드가 느껴지는 블랙 브레이슬릿 78만원 **자방시**.



세팅 소재 타이에 주얼 장식을 더한 여성용 타이 가격 미정 **미우미우**.



스트라이프 패턴의 울 재킷 3백만원대, 울 베스트 1백만원대, 에스닉한 패턴의 타이 가격 미정, 화이트 컬러의 칼라가 돋보이는 핑크 셔츠 가격 미정 모두 **탈프로렌 컬렉션**.



스타드 장식이 화려한 옥스퍼드 슈즈 85만5천원 **발렌티노** by **코브누아**.



위트가 느껴지는 해골 모티브 링 1백50만원대 **우고카치아토리** by **주느세라**.



강렬하고 살감투 스타드 디테일과 주얼 장식으로 포인트를 준 클러치. 23X10cm, 가격 미정 **크리스찬 루부앵** by **펜디**.

- 구찌 1577-1921
- 펜디 02-2056-9023
- 루이비통 02-3432-1854
- 타사키 02-3461-5558
- 돌체앤가버나 02-3444-0077
- 버버리 프로섬 02-546-7476
- 자방시 02-546-2790
- 미우미우 02-3449-5908
- 발망 02-6905-3585
- 분더샵 02-542-8006
- 주느세라 02-515-3151
- 코브누아 02-3785-2012
- 탈프로렌 컬렉션 02-6004-0133

스타일리스트 유민경 에디터 권유진

서울: 현대백화점 안구정본점 2F 02.3438.6008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IF 02.3467.8411 - 현대백화점 목동점 IF 02.2163.1189 - 신세계백화점 영등포점 IF 02.2639.1941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2F 02.3479.6030 6F 02.3479.6041 - 롯데백화점 김포점 IF 02.6116.3121 - 롯데백화점 잠실점 IF 02.2143.1817 - 롯데백화점 분점 IF 02.772.3265
대구: 현대백화점 IF 053.245.2120 부산: 현대백화점 IF 051.667.0128 - 신세계 센텀시티 IF 051.745.1239





귀여운 송동치를 연상케 하는 파장식이 유니크한 모자 78만원 안드레아 폴립리오 by 10 포르소 꼬모.



신뜻한 옐로 컬러의 아이패드 케이스, 34X23cm, 85만원 펠라시 by 지스트릿 494 옴모.



플라워 프린트기 최시한 키디건 78만원 아비타리스 by 10 포르소 꼬모.



조약돌을 연상시키는 곡선의 볼륨감과 총 2.04캐럿의 다이아몬드 세팅이 화려한 발롱 블루드 까르띠에 주얼 워치 가격 미정 까르띠에.



패시온 컬러로 물드는 핑크 컬러 타이 18만5천원 비비안 웨스트우드.



림 부분에 레이스 패턴으로 포인트를 준 선글라스 70만원대 랑랑 by 무이.



참 장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럭셔리한 키링 50만원대 베네타이즈 by 주느세라.



다양한 모티브와 소재를 믹스한 소재가 가방, 43X50cm, 38만원 비비안 웨스트우드.

정 유원 장 스타일리스트 에디터 권유진

for him Selection

패션에서 남녀 구분이 사라지면서 여성스러운 룩을 즐기는 남성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사랑스러운 핑크 컬러 제품은 물론 플라워 패턴, 레이스 디테일을 더한 아이템까지, 섬세하고 부드러운 남성을 대변해줄 패션 아이템. *photographed by zo jung hui*



파치마를 연상케 하는 넉넉한 실루엣과 크라운 패턴이 돋보이는 세련 이브닝 코트 가격 미정 프라다.



오닉스, 쿼츠 등 특별한 소재를 사용해 만든 스타 키본송 커프스 링크 47만원 몽블랑.



양가죽 소재의 그린 컬러 슈즈 2백23만원 존롭 X 폴 스미스.



별, 하트, 스트라이프 패턴이 사랑스러운 노트 가격 미정 고야드.



골프백에 어울릴 장식성이 뛰어난 소가죽 벨트 33만원 몽블랑.



파도에서 영감을 받아 부드러운 물결무늬를 형상화한 화이트 골드 아쿠아 클락선 링 3백만원대 오메가.



2시간 동안 최적의 온도를 유지시키는 핑크 컬러의 아이스 제킷 10만 원대 비브 클리코.

- 오메가 02-511-5797
- 까르띠에 1566-7277
- 주느세라 02-515-3151
- 무이 02-3446-8074
- 몽블랑 02-3485-6627
- 프라다 02-3218-5331
- 폴 스미스 02-3447-0278
- 고야드 02-3448-4778
- 꿈데가르송 02-3438-6277
- 비브 클리코 02-6911-0835
- 10 포르소 꼬모 02-3028-1010
- 지스트릿 494 옴모 02-3449-4494
- 비비안 웨스트우드 02-543-1790

BVLGARI



BVLGARI.COM

ETERNAL BEAUTY



피부의 미래를 리프로그래밍하다

아티스트리 유스 익스텐드

10년 후 피부, 달라질 수 있을까요?
아티스트리 유스 익스텐드라면 가능합니다.
지중해에서 찾은 젊음의 비밀, 라이프시르트(LifeSirt)와
7가지 특허로 탄생한 유스 익스텐드-
피부 주름 개선을 도와 젊음을 먼 미래까지 유지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젊음까지 케어하는 진정한 안티에이징-
오늘, 피부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ARTISTRY YOUTH XTEND



ARTISTRY™

글로벌 TOP5 프리미엄 스킨케어 브랜드

프랑스 현대미술계의 '총아', 자비에 베이앙

Xavier Veilhan

자비에 베이앙은 힘 있고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미학의 세계를 펼치는 작가다. 그것도 조각, 사진, 영상, 공연, 음악, 환경 전시 등 폭넓은 스펙트럼을 통해. 미니멀리즘을 그만의 스타일로 버무리면서 자신의 예술을 떠받치는 중심 축인 '표현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이 욕심쟁이 아티스트의 인생담과 작품 세계를 파리의 스튜디오에서 직접 접해왔다.



베르사유 궁전의 정원을 길고 높다란 말뚝 위에서 바라보고 있는, 전혀 야하지 않은 가녀린 나체의 소녀 조각상. 군더더기라고는 아예 처음부터 한 울도 담으려 하지 않은 듯 단아한 인상이다. 은색이 감도는 이 구릿빛 나체상은 첨단 3D 기술의 도움으로 매끈하게 깎은 표면을 꿰뚫고 진입하면 많은 스토리가 들어 있을 것만 같다. 웬지 슬퍼 보이니까 한 소녀의 눈동자는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걸까. 이번엔 강하지 않은 듯 하면서도 은근히 강한, 미묘한

느낌을 주는 보라색 다면체로 이뤄진 마차, 아무도 타고

있지는 않지만 용맹스러운 전사들을 가득 태우고 전장으로 질주하는 중세의 전차를 연상케 하는 역동적인 작품이다. 그 배경에는 마치 음악이라도 깔린 것처럼 달그락, 달그락 하는 말발굽 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이는 현재 프랑스의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작가 자비에 베이앙(Xavier Veilhan)이 지난 2009년 파리 인근 베르사유 궁에서 선보인 9점의 작품 중 라팜 누(La Femme Nue)와 르 카로스(Le Carrosse)의 사진을 보고 필자가 떠올린 생각과 이미지다. 그런데 그것이 작가의 의도였냐고 물어보는 건 큰 의미가 없는 듯하다. 파리의 스튜디오에서 마주한 자비에 베이앙은 “누군가 내 작품을 바라볼 때 남들과는 다른 무엇인가를 포착한다고 해도, 그리고 그것이 혹여 작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고 해도, 그 역시 실재하는 ‘진짜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시각의 간극을 오히려 즐기는 눈치다. 그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말한 내용도 비슷한 맥락이다. “전 얼마든지 제 작품에 대해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끔씩 제가 옳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 작업 자체보다 이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제된 미니멀리즘 안에 품은 양파 껍질 같은 매력

단어 하나에도 성찰의 무게가 느껴지는 이 49세의 작가에게선 파리지역 특유의 세련미, 중년의 성숙한 아티스트다운 노련미가 배어 나왔다. 최근 영국의 헤트필드(Hatfield)에서 열린 전시회 책자가 방금 나왔으며 유심히 들여다보고 있던 그는 바쁘다면서도 느릿느릿 할 건 다 하는 여유 있는 품세가 솔직히 결코 분주해 보이지는 않았다. 그림의 미학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프랑스인이랄까. 그런데 대화를 나눌수록 상당한 에너지와 호기심 가득한 눈빛이 흘러나왔다. 삶의 다채로운 이면에 대한 순수한 관심에서 비롯된 열정과 도전 의식을 그득 안고 있는 게 포착됐다. 그리고 그 자세가 꽤나 진중하고 반듯했다. ‘얼음 공예처럼 시원스럽고 정교하게 다듬은 단색 계열의 다면체를 덮고 있는 면면을 벗겨보면 내면의 풍경을 구성하는 흥미로운 요소들이 숨겨져 있을 듯한 그의 조각 작품과 일맥상통하는, 양파 껍질과 같은 면모를 갖추고 있다고나 할까. 이처럼 팔색조 같은 성향은 그가 도전해온 매개체의 다양성에서도 엿볼 수 있다. 그는 미니멀리즘을 품고 있기는 하지만 결코 한 분파에 종속되지 않는 자신만의 스타일을 구축했으며 조각은 물론이고 사진, 비디오, 설치 작품, 전시 예술 등 광범위한 창조의 스펙트럼을 넓혀왔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렉트로닉 밴드 에어(Air)의 음악을 배경으로 공연을 하기도 했고, 프랑스의 싱어송라이터 세바스티앙 텔리에르와 함께 영상 작업을 하기도 했으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디자이너 듀오인 로랑 & 에르완 부홀렉 형제와 퐁피두에서 공동 전시회를 열기도 했다. 그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표현의 가능성(Possibilities

1 2009년 프랑스 베르사유 궁전을 수놓은 화제의 작품 '모빌'. (사진 저작권 The Selby). 2 파리의 스튜디오에서 포즈를 취한 자비에 베이앙. (사진 김장산). 3-6 울름 서울 313갤러리에서 열린 루이 비통 '아트 토크와 자판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선보인 베이앙의 작품들. (3, 4번은 루이 비통 5, 6번은 313 Art Project에서 사진 제공). 7 지난 8월 9일에서 9월 16일까지 미국 LA의 뉴트라 VDL 하우스에서 개최된 전시회. 뉴트라는 베이앙이 어린 시절 동경했던 건축가 중 한 명. (사진 Joshua White, 저작권 베이앙 스튜디오). 8 베이앙의 스타일은 구체적인 생김새, 주름, 깃줄 등 디테일을 배제하고 추상화된 선과 면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요소만 남가놓는 것. (사진 제공 루이 비통). 9 우아한 미니멀리즘에 반해 뉴욕 5번가의 매장에 베이앙의 작품 '모빌'을 설치한 루이 비통은 2010년 말 그를 초청해 아트 토크를 진행했다. (저작권 Louis Vuitton/Billy Farrell Agency).





달라진 게 없냐는 질문에 그는 “엄청난 규모 때문에 전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명확하게 감을 잡는 데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그 덕분에 제 자신 안의 뭔가가 변했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시가 모두 끝났을 때 좀 더 차분하고 고요해졌다는 건 기억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베르사유 전시는 일을 실제로 시작했을 때도 꿈과 같이 흐릿하고 모호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전이 궁전이 실체라기보다 관념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에 기반해 이러한 흐릿한 이미지를 역사와 결부시키고자 했어요. 그래서 제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같은 궁전에 대한 이미지를 실제 공간과의 접촉과 만남이라는 사람들의 경험과 연결시키는 데 두었죠”라고 덧붙였다.

대가족의 품에서 자라난 호기심 많은 소년

자신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지만, 이 같은 메가톤급 프로젝트 덕에 자기의 명성에 한층 더 큰 폭의 변화가 생긴 것은 분명했을 터. 그는 언제나 지금처럼 단단하고 자신만만했을까? “전 예술가로 살 것이라는 데는 한 점의 의구심도 품은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중적인 인지도를 쌓는 데는 시간이 꽤 걸렸죠. 제겐 ‘그건 언젠가 찾아올 것’이라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작업을 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고 작품 세계를 남들에게 펼쳐 보이는 데 제약이 따르는 상황은 솔직히 좌절감을 주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가 어릴 때부터 ‘예술을 하겠다’고 정한 것은 아니었다. 단지 간단한 가구, 작은 배, 이미지 등 무엇이든 만들기를 좋아했기에 크리에이티브의 운명에 대한 막연한 예감을 지녔던 것일지도 모른다. “뭔가를 만드는 건 세계 사교하는 방식의 하나였지, 예술가로서의 커리어를 생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수로 살기에는 제가 뭔가 더 필요로 한다는 걸 깨닫게 됐죠.” 다분히 남성적이면서도 섬세한 그의 캐릭터를 고려하자면 좀 의외지만 그는 5명의 아이를 둔 대가족의 틈바구니 속에서 자라났다고 한다. 파리 출신도 아니다. 그 자신도 세 자녀를 두고 집에서 늘 뭔가를 푹푹거리면서 스스로 발주하는 ‘DIY’ 일감과 씨름하는 평범한 아버지며 가장이다. “늘 시끌벅적한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대가족이란 좋은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은 모두 음악에 흠뻑 빠져 있었어요. 전 개인적으로 토목, 건축에 흥미를 느꼈지만 집안 분위기와 항상 음악과 함께하는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영향일까. 그는 음악과 건축이라는 소재를 둘러싼 흥미진진한 프로젝트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하나는 지난 8, 9월 어린 시절 동경했던 건축가의 집에서 벌인 전시로 일명 ‘뉴트라 프로젝트.’ 리처드 뉴트라는 오스트리아 출신으로 미국에서 활약하면서 모더니즘을 주도한 20세기 중반의 건축가이다. 베이양은 자라면서 잡지에서 그를 자주 접했는데, 우연히 캘리포니아를 여행하다가 뉴트라의 집을 발견하고는 체류까지 하게 된 인연이 전시로 이어졌다고.

이유 있는 욕심과 도전 의식이 사랑스러운 중년

“책으로만 접했던 집을 몸소 보고는 아주 강력한 자극을 받았죠. 뉴트라의 VDL 하우스에 한 달 반쯤 머물다가 가족까지 불러 함께 시간을 더 보내면서 색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그냥 사진으로 보는 것과 그 공간 안에서 직접 사위를 하는 건 정말 다른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프로젝트에 대한 베이양의 애정은 무척 특별했다. “VDL 전시는 타자의 상업적인 개입이 없이 제 자신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있어요. 특히 리처드의 아들들을 만나 집과 얽힌 그들의 추억을 들으면서 새로운 방향성을 찾기도 했고요. 삶의 흔적에 뿌리를 둔 인간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춰 건축물을 바라보면서 작품에 임했으니까요.” 뉴트라의 책을 직접 펼쳐 보여주면서 차분히 설명하는 베이양의 목소리는 목직향 가운데서도 은근한 흥분과 설렘이 배어 나왔다. 또 하나의 야심찬 프로젝트는 음악인들과 함께하는 공연으로 이를 위한 준비가 ‘현재 진행중’이다. 베이양의 음악 사랑은 이미 수차례 진행한 음악인들과의 협연과 2인조 밴드 에어의 앨범 재킷 디자인으로도 충족될 수 없는 모양이다. 마침 스튜디오에 공연에 가담할 멤버들이 찾아오자 베이양은 만면에 웃음을 띠며 “우리 동지들”이라고 소개했다. “만약 다시 10대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느냐”고 묻자 다시 10대가 되고 싶지는 않다고 전제한 뒤 하지만 아마도 뮤지션이 되고 싶을 것 같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음악의 힘은 육체적·정신적 감각을 동시에, 절대로 분리되지 않은 채, 자아낼 수 있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각적 예술이 성취할 수 없는 모든 걸 가지고 있기에 보완적인 속성이 있지요. 그래서 이 둘을 한데 모으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데 열중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제 자신이 ‘완전한 경험’을 얻기 위해서지요.” 눈을 빛내며 열심히 ‘빨’을 풀어내는 이 남자, 참 밍지 않은 욕심쟁이다. **SI** 에디터 고성연(파리 현지 취재)

of Representation)이라는 중심 축과 잘 맞아떨어지는 행보를 꾸준히 이어온 셈이다. “제 작업에 진화(evolution)가 진행돼왔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는 변혁(revolution)이라는 표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핵심은 항상 그대로지만, 관점이 바뀐다고 할까요.”

‘표현의 가능성’을 통해 본질을 포착하려는 몸부림

그 핵심은 아마도 그가 누누이 밝혀왔듯 ‘본질(Essence of Real Things)’을 알아채는 것이라. 인지의 한계에 대한 질문을 던지듯 주름이나 찌름 같은 디테일이 전혀 없이 추상화된 선과 면의 미학을 바탕으로 힘과 정교함, 속도감이 느껴지는 최소한의 요소만 남기는 그의 작품 스타일도 오브제의 물성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인간과 사물의 정수를 포착하기 위한 방식인 것이다. 그의 언어로 직접 풀면 이렇다. “작가에게 주어진 건 단지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를 창조하는 게 아니라 그중에서 뭔가를 골라 연결하는 일이지요. 그러한 본질을 포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내는 게 제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다만 ‘언제나 자신을 매료시켰던 건 오브제, 기술의 진보를 바탕으로 한 속도감과 현대성(modernity)과 연결되는 방식의 표현’이라는 것. 기계적인 작동 원리에 대한 그의 관심은 1990년대 말 포드 자동차의 T 모델을 거의 수작업으로 재현한 작품에서도 단적으로 나타난다. 1963년생인 그는 세대가 세대인 만큼 현대 철학의 거목인 들뢰즈와 가타리의 ‘유목적 사유’를 젊은 시절부터 접했고, 미니멀 아트의 선구자 도널드 저드를 비롯해 에드 루사와 같은 관념주의 작가, 앤디 워홀, 제프 쿤스 같은 팝 아티스트에게서 복합적인 영향을 받았다. 하지만 지금은 단순히 미에 대해 탐색하고, 그 과정에서 떠오른 생각을 형태로 옮기는 데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에드 라인하르트의 미니멀 아트 작품이나 벨라스케스, 마네와 같은 수백 년 전 거장들의 고전적 작품에서도 ‘인간에 대한 관심, 관능’, ‘정수로 다가가고자 하는 욕망’ 등 공통분모를 찾을 수 있다며 바로크 아트에도 점점 더 흥미를 느낀다고 언급한 적도 있다. 미니멀리즘의 정공법을 구사하는 작가로서 역사를 진지하게 바라보고 과거와 소통하려는 그의 자세가 매머드급 프로젝트인 베르사유 궁의 전시회에서도 빛을 발했던 것 아닐까.

베르사유를 무대로 나래를 펼치다

그렇다. 베이양은 제프 쿤스 다음으로 베르사유 궁에서 대규모 개인전(2009년)을 개최한, 좀처럼 손에 쥐기 힘든 영예를 누린 작가다. 쿤스만큼 요란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는지 모르지만 그는 현존하는 최고의 미궁(美宮)을 무대로 특유의 굵고 힘찬 역동성과 단순미, 독특한 질감과 색채가 어우러진, 환경 조각의 한 획을 긋는 거대한 명작을 탄생시켰다. 이 글의 앞머리에도 언급한 별거벗은 소녀상과 보라색 아크릴물감으로 칠한 금속 마차를 비롯해 궁 안에는 은색 바탕과 창백한 연보라의 조화가 인상적인 러시아 우주 비행사 유리 가가린의 형상이 누워 있는가 하면 클로드 파랭, 렌조 피아노, 리처드 로저스, 안도 다다오 등 세계적인 건축의 대가들이 분수 옆 광장에서 관조하듯 앉거나 서 있는 진귀한 광경이 펼쳐졌다. 마치 서로 다른 시간대의 인물들이 시간 여행으로 궁에 도착한 상황을 연출한 SF 영화의 한 장면을 연상케 하는 이 전시는 3D 스캔을 통해 인물이나 사물의 형상을 디지털화한 뒤 폴리우레탄, 알루미늄 등으로 기하학적인 느낌의 ‘모노크롬 조각품’을 빚어내는 그의 작업 방식이 효과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당시 전시됐던 작품 중 커다란 원형의 보라색 공들이 허공에 매달려 움직이는 ‘모빌’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 비통의 심미안에 부합해 이듬해 뉴욕의 5번가 매장에 설치되기도 했다. 또 베이양은 루이 비통 아티스트의 한 사람으로 올봄 방한해 서울 도산공원 근처의 313갤러리에서 소규모 전시회와 함께 ‘고고학적 현대성’이라는 주제의 아트 토크에 주빈으로 참가했다. 베르사유 프로젝트로 뭔가

light Spirit

종잇장처럼 얇은 무브먼트로 완벽하게 시간을 컨트롤한다는 것은, 워치 마니아들을 가장 열광하게 만드는 요소다. 최소한의 소재로 시간을 움직이는 가장 혁신적인 울트라 신 워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바쉐론 콘스탄틴 페트리모니 트래디셔널 스킴** 투명함에 대한 찬사라는 모토가 그대로 전해지는, 무브먼트가 드러난 스켈레톤 워치. 제네바 홀 마크가 찍혀 있고 두께가 2.45mm에 불과한 1120SQ 칼리버를 장착해 세밀한 무브먼트의 움직임을 볼 수 있다. 아르누보 모티프를 인그레이빙하고 에펠탑 모티프를 형상화해 예술성을 더했다. 8천6백만원.

피아제 알티플라노 43mm 울트라 신 워치의 대명사인 피아제의 대표 컬렉션. 세계에서 가장 얇은 오토매틱 무브먼트인 5.25mm에 불과한 1208P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22K 골드 소재에 피아제 문양을 음각한 로터를 사용했다. 3천만원대.

예거 르쿨트르 그랑 리베르스 울트라 싹 트리뷰트 투 1931 브랜드를 상징하는 리베르스 칼렉션 탄생 80주년을 맞아 선보인 디자인이다. 1931년에 출시된 최초의 리베르스 디자인을 복원했다. 칼리버 822 무브먼트를 장착했고 45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갖췄다. 2천1백만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울트라 파인 1955 두께가 1.64mm에 불과한, 세계에서 가장 얇은 울트라 신 무브먼트를 장착한 클래식한 워치. 직경 21.0mm인 무브먼트 쪽 역시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수동 기계식 워치로는 세계에서 가장 얇은 4.1mm 두께로 손목에 착 달라붙는 놀라운 착용감을 선사한다. 3천6백만원대.

브레게 클래식 5157BA 브레게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무브먼트인 울트라 싹 칼리버 507DR을 장착한 클래식 컬렉션. 클래식한 다이얼 디자인과 섬세한 기호세 패턴이 아름다운 아름다움의 정수를 보여준다. 뒷면이 투명하게 보이는 사파이어 케이스백을 통해 무브먼트의 섬세한 움직임을 감상할 수 있다. 2천87만원.

오메가 드빌 프레스티지 오메가의 프리미엄 라인인 드빌의 프레스티지 워치. 로마자로 표기한 인덱스, 얇은 케이스와 심플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옐로 골드 케이스에 악어가죽 스트랩을 매치했고, 코-엑시얼 2500 무브먼트를 사용했다. 48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도 갖췄다. 8백만원대.

예거 르쿨트르 마스터 울트라 싹 문 시계의 핵심적인 기능만을 갖춘 간결하면서도 우아한 워치다. 완벽한 절제미를 보여주는 디자인에 예거 르쿨트르의 무브먼트인 칼리버 925와 43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탑재했다. 클래식한 화이트 골드 다이얼에 시침, 분침, 초침으로만 군더더기 없이 구성했고, 6시 방향에 문페이즈와 날짜 디스플레이 창을 배치해 간결하지만 특별하다. 1천2백20만원대. 에디터 배미진

바쉐론 콘스탄틴 02-796-4510 **피아제** 02-540-2297
예거 르쿨트르 02-756-0300 **브레게** 02-3438-6218
오메가 02-511-5797

www.swarovski.com/korea
INFORMATION 02.3395.9096

© 2012 SWAROVSKI AG



SWAROVSKI



(가운데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청초한 릴리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아름 브로치. 화이트 골드와 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부쉐론**, 볼륨감 넘치는 불가리의 다이아몬드 하이 주얼리 링 두 가지. 위의 제품은 플래티넘 소재에 5.25캐럿 쿠션 컷 다이아몬드 양 옆으로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아래 제품은 플래티넘 소재에 3.01캐럿 쿠션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제품. **불가리**, 한 쌍의 다정한 앵무새를 모티브로 한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 블랙 컬러 실크 네크리스 줄을 매치해 펜던트가 더욱 돋보인다. **까르띠에**, 뉴욕의 크라이슬러 빌딩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라임라이트 파피-뉴욕 하이 주얼리 컬렉션 네크리스. 반원형 프레임 5개를 둘러싼 다이아몬드 체인이 아름답다. **피아제**, 우아한 디자인의 그레이스 컬렉션 티아라. 정사각형의 프리세스 컷 다이아몬드와 작은 리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로 클래식하게 완성했다. **티파니**,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백조의 날개를 사실적으로 표현한 에피파니 네크리스. 초크 스타일의 볼드한 디자인이 과감하다. 깃털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 세심하게 마무리했다. **타사키**, 3백여 개에 달하는 최상급 다이아몬드를 화려하게 세팅한 플라워 모티브 브로치. 자유롭게 피어난 꽃잎의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부쉐론**, 화려한 정원을 다양한 컬러의 유색석으로 표현한 기든 컬렉션 브레이슬릿. 반클리프 아펠 고유의 우아한 여성미를 표현했다. **반클리프 아펠**, 클래식한 모티브인 용을 화이트 다이아몬드와 블루 컬러 사파이어로 표현한 하이 주얼리 링. 디테일한 묘사가 돋보이는 볼드 링이다. **까르띠에**, 에디터 배미진

Bloomy day

생명력 넘치는 꽃 속에서 더욱 빛나는, 오랜 역사와
고귀한 원석으로 완성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부쉐론 02-543-6523 타사키 02-310-1854
반클리프 아펠 02-3440-5660 티파니 02-547-9488
피아제 02-540-2297 불가리 02-2056-0172
까르띠에 1566-7277

MOGG



timeless Beauty

오랜 시간 동안 한 가지 이름으로 출시해 브랜드의 대표작으로 자리 잡은 제품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각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판매력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오랫동안 꾸준히 판매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비자의 확실한 검증을 받은 스테디셀러 안티에이징 제품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더 히스토리 오브 후 비첩 자생 에센스 20대부터 50대까지 피부 타인과 연령을 막론하고 모든 세대에 사랑받는 안티에이징 에센스. 공중 3대 지방인 공진비단, 경옥비단, 청삼비단을 합한 제품으로 피부 스스로 힘을 기르는 피부 자생 콘셉트의 제품이다. 출시 이후 판매된 양의 숫자가 에베레스트 산 높이의 7배 이상이 될 만큼 많은 수량이 판매되었다. 45ml 16만 원대. 문의 080-727-5252

YSL 포에버 유스 리베레이터 세럼 국내에서 10월에 첫선을 보이는 제품이지만, 유럽 안티에이징 시장에서 놀라운 인기를 얻은 이브 생 로랑 스킨케어의 안티에이징 세럼, 주름 개선, 리프트, 플럼핑, 윤기를 주는 활성 성분 글리칸 액티프™(Glycanactif™)가 주요 성분이다. 스포이트 타입으로 아침저녁으로 사용할 수 있다. 30ml 13만 원, 문의 080-347-0089

다들 캠퍼 토달 원 에센셜 출시 후 몇 개월간 품절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은 다음의 대표 안티에이징 에센스. 세포 독소를 줄여준다는 콘센트로 펄 론코자™ 성분이 피부 독소를 제거하고 재생을 돕고, 프로테아좀이라는 자연적인 단백질 분해 시스템을 갖췄다. 다른 스킨케어 제품의 효과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는 부스팅 에센스로, 세안 후 가장 먼저 사용해도 좋다. 50ml 17만5천 원, 문의 02-3438-9529

랑콤 제나피코 유스 액티베이터 10년간의 연구, 7개의 국제 특허로 3백만 개 이상이 판매된 안티에이징계의 스타 제품이다. 아이 크림과 대용량 제품 등 제나피코의 새로운 라인들도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가장 대표적인 제나피코 에센스에 담겨 있는 테크놀로지 성분은 2029년까지 오로지 랑콤만이 사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술이다. 50ml 16만8천 원, 문의 080-022-3332

아티스트리 크림 LX 2009년 출시해 브랜드를 대표하는 크림으로 자리 잡았다. 피부결을 개선하는 효과가 뛰어나고 고유한 텍스처가 매력적인 제품으로, 바르는 즉시 흡수되어 끈적임이 남지 않는다. 크림 LX만의 특별한 성분인 카디오리핀, 스피치 추출물, L-카르노신 등이 농축되어 있으며, 주름 개선 기능성을 인정받았다. 최근에는 아이크림을 함께 선보여 컬렉션을 확장하고 있다. 45ml 29만5천 원, 문의 1588-0080

샤넬 울트라 포레시옹 리프트 인텐시브 리프팅 세럼 얼굴 윤곽선 교정 효과가 뛰어난 샤넬의 울트라 세럼. 2011년 출시 이후 샤넬을 대표하는 안티에이징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안티에이징 활성 성분인 엘레비 PFA와 트리플 액션 펩타이드를 결합해 피부조직을 치밀하게 만드는 것을 돕는다. 30ml 20만5천 원, 문의 080-332-2700

에스티 로더 나이트 리페어 갈색병이라는 너무나 유명한 애칭만큼이나 많은 사랑을 받은 에센스. 전 세계적으로 1분에 7병씩 판매되는 기록을 세운 것은 물론, 70여 개 이상의 수상 기록을 가지고 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탄생한 에스티 로더만의 독자적인 크로노룩스™ 기술은 손상된 피부를 치유하는 연구 같은 역할을 한다. 촉촉하고 부드러운 텍스처는 제품이 오래도록 사랑받는 데 큰 역할을 했다. 50ml 15만5천 원, 문의 02-3440-2772

설화수 자음생 크림 2000년 출시한 이래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안티에이징 크림. 4년생 이상의 원숙한 인삼에서만 얻을 수 있는 진생배리(인삼 열매)에서 추출한 성분을 담아 피부 표면의 주름을 완화하는 것은 물론, 근본적인 재생에 효과가 높다. 얼굴 전체에 퍼 바른 다음 손바닥으로 눌러 흡수시키면 더욱 효과적이다. 60ml 23만 원대, 문의 080-023-5454 에디터 배미진



雪花秀

탄탄하게 빛나는 얼굴의 기본은 속부터 단단히 여민 피부입니다 설화수 여민에센스

피부 밀도가 느슨해지면 피부 빛, 피부 결, 피부선 모두 무너집니다.
문제의 근본인 피부 밀도를 개선하여
흐트러진 얼굴의 빛, 결, 선까지 한 번에 살려주는 여민에센스
피부를 단단히 여미는 순간, 탄탄하게 빛나는 얼굴은 시작됩니다.
근본에서 찾은 더 좋은 대답, 여민에센스

Sulwhasoo



내 피부 단단히 여며져 있을까? 지금 바로 체크해보세요

유명백화점이나 아모레 카운셀러를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www.sulwhasoo.co.kr · www.facebook.com/sulwhasookorea · 고객센터: 080-023-5454 (수신자 요금부담)

whitening

빠르고 집중적인 미백 케어를
도모줄 화이트닝 코스메틱.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겔랑 블랑 드 펄 퍼블 퓨전 화이트닝 트리트먼트** 기존 화이트닝 에센스보다 농도가 6배 높은 펄 콤플렉스 성분을 함유한 집중 트리트먼트 에센스. 9.4ml 15만9천원. **스위스퍼펙션 셀룰라 인텐시브 페이스 케어** 풍부한 수분을 빠르게 침투시켜 즉각적으로 화사하고 탄력 있는 피부로 바꿔주는 앰플. 7개입 98만원. **샤넬 르 블랑 크림** 피부의 색소침착 과정을 둔화하고 8시간 동안 최적의 보습 효과를 제공한다. 50g 14만원. **시세이도 화이트 루센트 인텐시브 스팟 타겟팅 세럼** 플라스 멜라노 센서 시스템 플라스 테크놀로지가 고집적인 잡티를 완화하는 인티 스팟 세럼. 30ml 13만3천원. **랑콤 블랑 엑스퍼트 크리스탈 에센스** 멜라닌 생성을 차단하는 데카틸 복합체와 액틸 P 성분을 담아 칙칙한 피부 톤을 개선한다. 30ml 14만8천원.

whitening



anti-aging

anti-aging

동양인 피부에 최적화된 아시안 보태니컬 성분을 담아 더욱 믿음이 가는 안티에이징 코스메틱.

(위부터 차례대로) **아모레퍼마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크림** 녹차의 정수로 구성된 어드밴스드 타임 레스폰스 콤플렉스*가 외부 자극으로부터 피부 탄력 인자를 보호해 노화의 징후를 빠르게 케어한다. 50ml 48만원. **설화수 진살크림** 사해 적송에서 추출한 한방 성분이 피부의 힘을 일깨우고, 탄력 있고 도통한 크림 제형이 피부에 밀착되어 풍부한 보습막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 60ml 42만원. **아모레퍼마픽 타임 레스폰스 스킨 리뉴얼 세럼** 5천 송이의 녹차꽃 추출물과 녹차 세포를 함유해 안티에이징 효과와 피부 재생 능력을 강화한 세럼. 30ml 55만원. **설화수 진살유액** 피부조각과 유사한 소나무 잔액 오일 성분이 피부에 영양과 생기를 부여한다. 125ml 11만5천원.

Prestige zone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니 곳곳에서 웨딩 소식이 들려온다. 10월의 아름다운 신부에게, 혹은 부모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예단 화장품은 무엇보다 신뢰가 가고 품격이 느껴지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럭셔리 웨딩 뷰티 케어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프레스티지 코스메틱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luxurious gift

고급스러운 향과 질감, 강력한 항산화 효과까지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럭셔리 크림.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겔랑드보 보메 라 고렘** 인티에이징과 화이트닝 기능성 인증을 받아 피부에 나타나는 모든 노화 증상을 개선한다. 30ml 68만원. **다올 프레스티지 화이트 컬렉션 익스퀴zit 뉴트리션 브라이딩 크림** 노화에 집중 작용하는 로즈시틴 벡터 성분을 함유했으며 촉촉한 크림 제형이 돋보인다. 50ml 39만원. **에스티 로더 리-뉴트리브 레디언트 화이트 에이지 리뉴얼 크림** 리-뉴트리브 화이트 튜베로즈 성분을 고통축해 뛰어난 보습 작용과 화이트닝 효과를 동시에 발휘한다. 50ml 37만원. **라프레리 셀룰라 플래티늄 레어 크림** 셀룰라 콤플렉스, 플래티늄 워터 등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피부 DNA를 보호해 노화를 예방한다. 50ml 1백35만원.



prestige cosmetics

essential care

투명하고 탄력 있는 완벽한
피부를 위한 웨딩 뷰티
컬렉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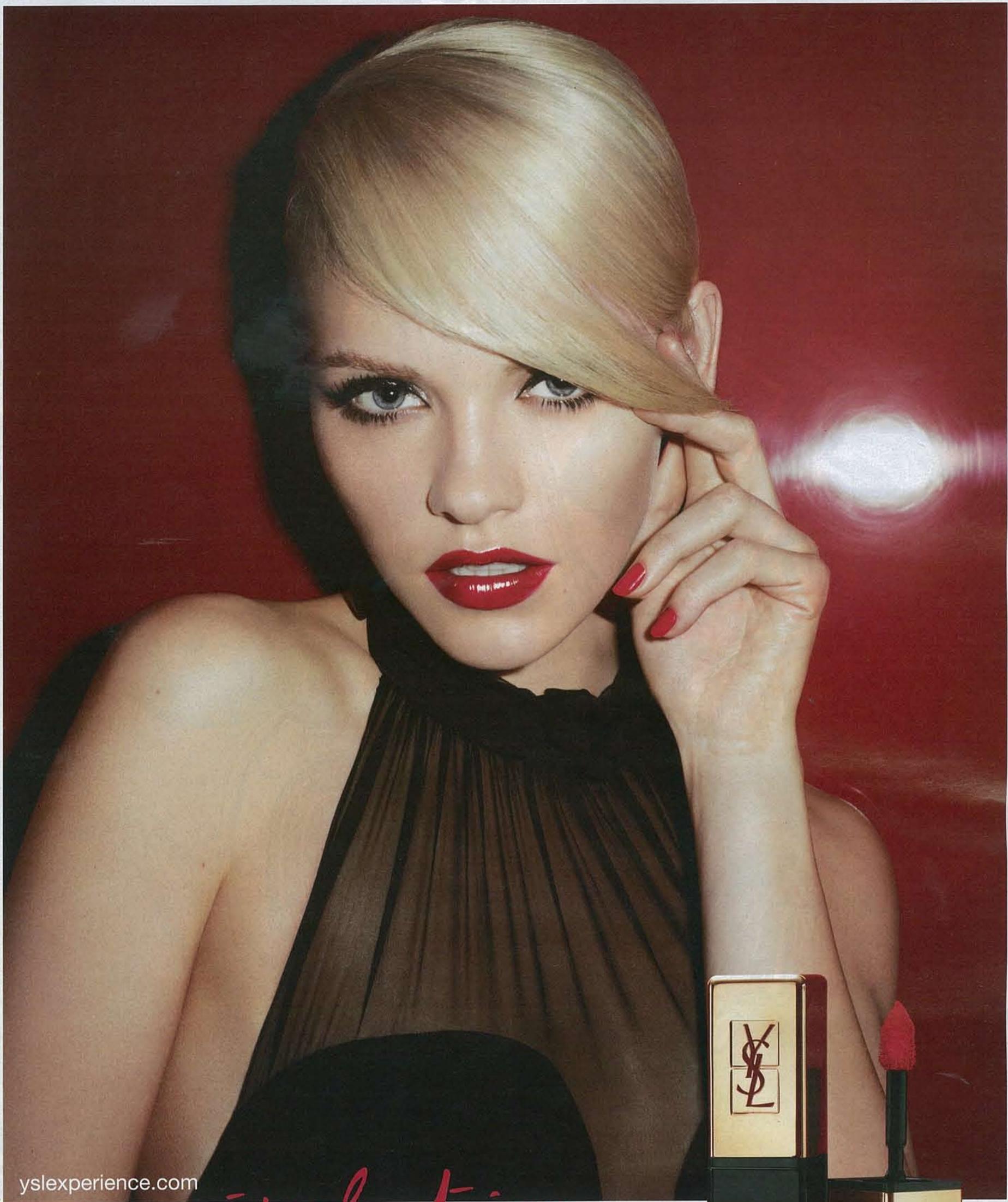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겔랑 오가드 임페리얼 넥 앤 데콜레 크림** 탄력 있고 매끄러운 피부로 바꿔주는 차세대 오가드 임페리얼 분자 추출물을 농축해 아름다운 목선과 가슴 라인을 완성한다. 75ml 46만5천원. **랑콤 압슬뤼 프레스스 셀 화이트 컨센트레이트** 피부 재생 능력을 높이는 프록-실린*과 잡티를 케어하는 화이트 바이오 시스템 성분을 담아 미백은 물론 피부 노화까지 케어하는 토털 세럼. 25ml 34만원. **겔랑 시크릿 다비안 스킨 퍼펙팅 세럼** 피부 세포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피지를 지속적으로 조절해 모공을 타이트하게 잡아준다. 30ml 11만3천원. **임프레스 그랜듀라 크림** 약과 같은 개선 효과를 선사하는 세 가지 약부외용 성분을 처방, 피부 본연의 탄력과 윤기를 더해준다. 40g 1백70만원. 에디터 권유진



wedding care

겔랑드보 보메 02-3438-6032
다올 02-3438-9537
에스티 로더 02-3440-2772
라프레리 02-772-3130
겔랑 02-3438-9627
스위스퍼펙션 02-555-5152
샤넬 080-332-2700
시세이도 080-564-7700
랑콤 080-022-3332
임프레스 080-990-8989
아모레퍼마픽·설화수 080-023-5454

Make-up: Teint Radiance N°1, Touche Eclat N°2, Mascara Volume Effet Faux Cils Shocking N°1, Eyeliner Effet Faux Cils N°1, Dessin du Regard N°1, Rouge Pur Couture Vernis à Lèvres N°9, La Laque N°1.



yslexperience.com

révolution
YVES SAINT LAURENT

ROUGE PUR COUTURE **VERNIS À LÈVRES**

립틴트? 립글로스? 립스틱? 타협하지 말고 모든 것을 가지세요.

한 번의 터치로 놀랍도록 가벼운 틴트를, 두 번의 터치로 눈부시게 빛나는 글로스를,
세 번의 터치로 선명한 컬러의 립스틱을, 이 모두를 하나에 담은 리퀴드 루주.

베르니 아 레브르로 매 터치마다 달라지는 놀라움을 경험하세요.



bottled Romance

언제나 풀고 있는 나만의 향기를 공유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비밀스러운 교류다. 새로운 계절, 달콤하고 따뜻하며 신선한 향기를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넬 코코 누아르** 이름만으로도 여자를 설레게 하는 샤넬의 새로운 향수. 샤넬의 시그니처인 블랙 드레스의 향수 버전으로 베니스에서 영감을 받은 우디 베이스와 머스크 노트를 사용했다. 진향이 오래가는 관능적인 향수를 원하는 여성에게 잘 어울린다. 50ml 14만7천원. 문의 080-332-2700

몽블랑 레전드 푸르 필름 남성용 몽블랑 레전드와 카를 향수로 최근 새롭게 선보인 몽블랑 최초의 여성용 향수다. 몽블랑 주얼리 4810 링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은 향수 보틀은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스타 로고와 동일한 디자인이다. 파우더리한 핑크 컬러 향수는 플로럴 프루티 머스크 향과 오렌지 블러섬, 재스민, 머스크, 바닐라 향기를 담았다. 75ml 12만5천원. 문의 02-3779-7242

마크 제이콥스 도트 눈에 띄는 화려한 패키지가 특징인 향수. 과장된 사이즈의 캡, 날개를 형상화한 독특한 디자인에 블랙 도트 패턴을 더해 과감하게 완성했다. 인체적인 디자인 덕분에 각도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보인다. 우아하고 매력적인 주시 플로럴 향기를 담았다. 50ml 8만9천원. 문의 02-3443-1805

딤티크 필로시코스 오로지 향기에 관한 제품만 만드는 향수의 명가 딤티크의 시그니처 향수. 무화과 열매 향에 팜베나무의 우디 향을 더해 상쾌하고 부드러운 향을 느낄 수 있다. 베이스 노트에는 따스한 흙 향과 무화과나무의 송진 향이 어우러져 깊은 향을 발산한다. 상쾌하고 잔잔한 그린 우디 플로럴 향수로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잘 어울린다. 75ml 19만8천원. 문의 02-514-5167

세르주 루텐 뉴 드 셀로판 흔한 향수 대신, 오로지 나만의 향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선물하면 좋은 하이엔드 향수 브랜드 세르주 루텐. 세계적인 조향사 세르주 루텐이 만든 특별한 향수에는 쉽게 알아챌 수 없는 관능적인 향기가 담겨 있다. 심플한 보틀에 담긴 뉴 드 셀로판은 중국 단계목과 굴, 화이트 플라워 향기를 풍긴다. 50ml 17만원. 문의 02-514-5167

에르메스 수르닐 오어 밴덴스 퍼퓨미 강아지에서 볼 수 있는 초록색 빛에서 영감을 받은 보디 미스트. 진향 향을 깨닫다면 자연스러운 향취를 위한 향수로 사용하면 좋다. 연꽃과 망고, 등나무, 무화과 나무 숲의 향기를 담았다. 수분 공급 기능이 있어 메리카리에도 사용할 수 있다. 200ml 15만6천원. 문의 02-2240-7402

매들리 겐조 가벼운 플로럴 향을 담은 겐조의 새로운 향수. 세계 3대 디자이너로 꼽히는 론 아라드가 완성한 유기적인 곡선 보틀 디자인은 나비의 날갯짓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아프리카 오렌지 꽃, 장미가 어우러진 은근한 플로럴 향과 부드러운 무게감이 느껴지는 화이트 머스크 향을 담아 매일 사용해도 질리지 않는 친근한 향수다. 30ml 6만3천원. 문의 080-344-9500

YSL 베리자렌스 오프 파르팡 보석같이 반짝이는 보물 패키지에 여성스러운 핑크 컬러의 프루티 플로럴 향수를 담았다. 이브 생 로랑 향수를 대표하는 스테디셀러 제품으로 장미꽃과 산딸우드, 바닐라 향이 은근하게 퍼진다. 50ml 12만8천원. 문의 080-347-0089 에디터 **배미진**

GUERLAIN

빛을 머금은 화사한 퓨어 스킨

PARURE
DE LUMIÈRE

빠뤼르 뤼미에르 파운데이션



natural Wonder

과일 하나를 먹더라도 친환경 농산물 인증 마크를 따지는 요즘, 화장품을 살 때도 성분 표시는 물론 유기농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게 당연한 수순처럼 보인다. 원료의 재배, 가공 단계에서부터 일체의 화학 성분을 배제한 유기농 화장품은 무엇보다 안전하고 자극의 위험에서 자유로움에 신뢰를 더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zoo*

(왼쪽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모타티카 1997년 후주의 저명한 아로마 테라피스트의 천연 원료에 대한 열정으로 탄생한 유기농 아로마테라피 브랜드. 호주, 프랑스, 영국, 인도 등 전 세계 아로마 오일 산지에서 직접 수입하는데, 아성에서 재배한 허브에서 추출한 유기농 에센셜 오일을 들여오는 공정 무역을 원칙으로 한다. 미국 환경 운동 단체 EWF의 7년간의 평가를 통해 가장 안전한 '캠피안' 등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호주 ACO 유기농 인증을 비롯해 미국 USDA, 프랑스 에코서트 등을 획득해 신뢰를 더한다. 로즈힙 열매에서 추출한 페이스 오일 100%가 들어 있는 유기농 로즈힙 오일은 건조하고 연약한 피부 장벽을 단단하게 강화해 매끄럽고 건강한 피부를 가꾸는 데 도움을 준다. 30ml 2만5천원. 문의 1600-3689

OM 19세에 양에 걸린 설립자 스킨케어는 이탈리아 중부 토스카나의 몬타우로 지방의 오염되지 않은 환경과 비옥한 토양에서 자란 식물, 야생 허브를 먹으며 병을 이겨낸 것을 계기로 오일을 만들었다. 직접 경향한 유기농 식물과 허브의 효능을 보다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였는데, 몬타우로 지방의 허브 중 수확한 지 일주일 이내의 식물로만 우수한 품질의 에센셜 오일을 만든다. 세계에서 첫 번째로 코스모스(COSMOS) 오가닉과 ICEA의 까다로운 유기농 인증을 받았다. 페이스 토너 밤은 147가지 오가닉 에센셜 오일 추출물과 천연 발진 약사가 만든 각질과 노폐물을 제거하고 수분 보유력을 높여 피부결을 매끈하게 만든다. 30ml 1만9천원. 문의 070-8702-5151

페르독 프랑스 브랜드 루시앙 창립 멤버 중 한 명인 발레리 루보와 파트릭 리옹이 만든 리프스타일 뷰티 브랜드. 베트남, 아프리카, 모로코, 인도 등의 국가와 공정 무역을 통해 재배한 유기농 성분을 95% 이상 함유해 에코서트 인증을 받았다. 재료를 용기와 천연 잉크로 인쇄된 설명서를 통해 패키지에 하나도 환경을 해치지 않아야 한다는 브랜드 철학을 느낄 수 있으며, 화장품뿐만 아니라 향초, 유기농 차 등 다양한 유기농 제품을 선보인다. '스프렛 드 라 보네 마호겐느' 오일엔탈 앰버 미사지 오일은 은은한 향이 일품인 미사지 에센셜 오일, 까칠한 피부결이나 깨진 손톱, 건조한 모발 등 재생이 필요한 어드레스에 사용될 수 있다. 100ml 4만4천원. 문의 02-541-5787

멜비타 발진에서 얻은 원료를 바탕으로 유기농 비누 개발에 성공한 창립자 베리나르 세발로이는 이를 시작으로 1983년 멜비타의 다양한 친환경 스킨케어 제품을 만들게 되었다. 1년에 두 번 토양과 원료 생산 과정, 운송 등에 대한 현지 감찰을 받고 있으며 까다로운 환경 기준을 통과한 모든 제품이 에코서트와 코스메비오 인증을 받았다. 멜비타 고유의 수증기 증류법으로 만든 '로즈 플로럴 워터'는 유기농 장미 추출물이 수분을 빠르게 채워주고, 민감한 피부를 다독이는 데 제격. 이 로즈 플로럴 워터 1개를 위해 이란의 다이스크 로즈 2천 개의 꽃잎을 사용할 만큼 유기농 꽃잎의 농축액이 그대로 녹아들어 있다. 200ml 3만8천원. 문의 02-3014-2997

닐스아드 레메디스 파란색 병으로 잘 알려진 영국 판매 1위 유기농 브랜드. 그만큼 최초로 이룬 업적이 많은데, 영국 최초로 오가닉 화장품 업체로 인증 받았을 뿐만 아니라 최초의 오가닉 인증 에센셜 오일 판매,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화장품 회사로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1980년대부터 런던 근교의 직영 농장에서 자란 유기농 허브와 약재로 그해 직항으로만 소량 한정 생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닐스아드 레메디스의 가장 중요한 성분인 프랑켄센스가 농축된 프랑켄센스 나리시 크림은 힘을 잃은 피부에 생기를 더하고, 눈에 뜨는 주름을 광명하게 파주는 리치한 영양 크림이다. 50g 5만9천원. 문의 02-565-1130

닥터 브로너스 다양한 컬러 패키지의 비누로 잘 알려진 닥터 브로너스는 1백 54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미국의 대표적인 유기농 브랜드.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 작정 농장을 만들어 유기농법을 통한 원료를 추출해서 제조한다. 오가닉 코코넛 오일을 비롯해 윌라브 오일, 햄프 시드 오일, 호호바 오일 등을 베이스로 오가닉 라벤더, 페퍼민트, 티트리 등 다양한 에센셜 오일을 첨가해 각자의 피부 타입이나 취향에 맞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천연 윌라브 유칼립투스 퓨어 캐스틸 솜은 면역력 강화 효과가 있는 유칼립투스 에센셜 오일을 주원료로 해 울긋불긋한 피부 트러블을 잠재워준다. 238ml 1만2천5백원. 문의 02-3414-1109

존 마스터스 1991년 미국 뉴욕의 소호에서 탄생한 존 마스터스는 미용실의 독한 화학 제품이 건강에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한 레이 스타일리스트 존이 천연 성분의 화장품을 만들어야겠다는 염념으로 설립한 브랜드이다. 전 제품에 합성 계면활성제와 방부제, 인공색소를 일절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물론, 순수 자연 재배 방식인 '외월드 크리프트'로 키운 30여 가지의 천연 유기농 허브와 식물의 원재료만을 고수한다. 모로칸 클레이 퓨어피잉 마스크는 천연 모로칸 클레이가 모공 속에 쌓인 노폐물이나 불필요한 피부를 단박에 없애줘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고 다음 단계의 스킨케어 효과를 배가시킨다. 피지 분비가 왕성한 자성피부나 여드름 피부에 사용하면 제대로 된 효과를 느낄 수 있다. 50ml 9만5천원. 문의 080-547-7000 에디터 권유진, 이예진

캘리네스 by 오프레 클레오파트라와 고대 로마인들이 젊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전무한 당나귀 밀크를 주성분으로 하는 캘리네스는 스위스의 자연 친화적인 원료로 제품을 만든다. 브랜드를 대표하는 '캘리네스 시크릿 락테 프랑켄센스 트리트먼트'는 당나귀 밀크를 비롯해 유기농 호호바 오일, 시어버터, 아르간 오일 등 다양한 유기농 식물성 성분의 시너지 효과로 즉각적인 보습을 주는 인티에이징 크림. 에센스 단계에 빌라도 좋고, 금강하게 평간되거나 건조하다 싶을 때 크림과 섞어 듬뿍 발라도 좋다. 50ml 9만5천원. 문의 080-547-7000 에디터 권유진, 이예진



john varvatos
ARTISAN

THE PAST AND THE FUTURE, ARTFULLY INTERWOVEN



high Drama

아름다움의 깊이가 느껴지는 하이 주얼리를 대면한다는 것은, 환희와 감동이 조우하는 드라마틱한 경험이다. 이탈리아의 유서 깊은 주얼리 브랜드 불가리아 찬란한 다이아몬드 컬렉션을 선보였다.

1 플래티넘 소재에 에메랄드 컷 다이아몬드와 페어 세이프 다이아몬드,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등 다양한 컷팅의 다이아몬드를 조화롭게 세팅한 이어링. 2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 20,27캐럿을 세팅한 화려한 네크리스. 3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를 세팅한 세르펜티 하이 주얼리 브레이슬릿. 4, 5, 6 원석을 위해 특별히 고안한 디자인에 맞춰 장인들이 섬세하게 완성하는 불가리아의 하이 주얼리 컬렉션 제작 과정. 7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불가리아 하이 주얼리 컬렉션 전시, 전시와 함께 네오 소프라노 니콜 르노(Nicole Renaud)와 실루엣 아티스트 이네스(Ines)의 공연이 열렸다.

불굴의 힘, 영원을 상징하는 다이아몬드 컬렉션

패션에 실제로 입을 수 있는 옷인 레디투웨어 컬렉션과 브랜드의 정수를 담은 오프 쿠티르가 있다면 주얼리는 매장에 진열되어 있는 일반적인 주얼리와 브랜드의 전통과 역사, 모든 핵심을 담은 하이 주얼리 컬렉션으로 구분할 수 있다. 디자인과 심미성을 중시하고 최상의 소재만을 사용하는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다이아몬드와 유색석 등 고귀한 원석을 가장 화려하고 볼륨감 있게 선보여 값을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술적인 작품이 많다. 엄격하게 선별한 원석을 소재로 장인들의 손끝에서 태어난 하이 주얼리를 실제로 만나는 것은 쉽게 접하기 어려운 특별한 경험이다. 유서 깊은 주얼리 브랜드들은 해마다 새로운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소개하기 위해 전 세계를 순회하며 전시를 개최하는데, 그 일환으로 불가리아는 지난 9월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VIP를 위한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번 컬렉션은 화려한 유색석으로 대변되는 기존의 대표적인 스타일을 넘어서 오로지 깨끗한 다이아몬드만으로 세팅한 30여 개에 달하는 하이 주얼리 컬렉션이었다. 투명한 다이아몬드만 사용했지만 불가리아 고유의 볼륨한 느낌은 그대로 살아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바로 뱀을 모티브로 한 세르펜티 하이 주얼리 컬렉션이다. 영원, 불멸, 지혜와 풍요를 상징하는 세르펜티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는 뱀의 비늘을 아름답게 표현하는 데 주력했다.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촘촘히 풀 파베 세팅해 마치 살아 숨 쉬는 것처럼 완성해 아름다움을 극대화함으로써 기존의 세르펜티 컬렉션을 한 차원 더 업그레이드했다는 평가다. 세르펜티 브레이슬릿의 하이 주얼리는 화이트와 옐로 골드 두 가지 버전으로 선보였는데, 다이아몬드를 풀 파베 세팅한 디자인은 물론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를 함께 세팅해 손목을 두 번 감는 디자인은 브랜드의 아이코닉한 면모를 강조했다.

1백23년의 역사가 빚어낸 아름다움

불가리아 하이 주얼리 컬렉션은 1점당 제작 기간이 6개월에서 3년 정도 소요되고, 전 세계 1천여 점의 하이 주얼리는 오로지 단 하나만 존재하기에 희소가치가 높다.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되는 하이 주얼리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말할 것 없이 '스톤', 바로 원석이다. 때로는 원석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기 위해 스톤에 맞춰 디자인하기도 한다. 1백25년이 넘는 역사를 통해 쌓아온 원석의 선별과 컷팅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은 불가리아 하이 주얼리 컬렉션을 단단하게 지탱하고 있다. 다이아몬드는 2005년부터 세계 최대의 다이아몬드 생산 그룹인 레브 레비에브(Lev-leviev)와 독점 계약해 최상의 진귀한 다이아몬드를 사용함으로써 불가리아는 브랜드의 이름에 맞는 최상의 퀄리티를 보장한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G.I.A 보증서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김벌리 공정(Kimberly Process)을 준수하는 나라들의 엄선된 다이아몬드만을 사용한다.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벽하게 컷팅한 스톤만 구입해 주얼리에 사용한다. 이 모든 과정은 주얼리의 본질인 최상의 원석을 구하고, 연마해 세팅하기 위한 철저한 불가리아만의 기준인 것이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 5.01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링 역시 위의 기준을 철저히 지킨 최상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했는데, 유니크한 형태의 4.11캐럿 마키즈 컷 다이아몬드와 2개의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플래티넘 링까지, 다이아몬드 링의 매력을 극대화하는 데 주력했다. 투명도와 컷팅, 컬러, 캐럿 등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다이아몬드를 만나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주얼리는 희소가치를 지닌다. 하이 주얼리에는 이 모든 조건을 갖춘 특별한 원석만 사용해, 그 원석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특별한 세팅, 디자인을 더했고, 이 모든 과정에는 1백여 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불가리아의 세심한 터치가 담겨 있다. 브랜드의 역사가 발전할수록 더욱 아름다운 주얼리가 탄생하는데, 하이 주얼리는 그 정수라고 할 수 있다. 불가리아가 이야기하는 하이 주얼리의 새로운 아름다움, 다이아몬드의 아름다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전시를 국내에서도 더욱 자주 접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에디터 배미진





MONT 
BLANC
LEGEND
POUR FEMME
THE NEW FRAGRANCE

the next Step

스니커즈는 캐주얼 룩에 매치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그 틀을 깨면 보다 세련되고 멋스러운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다. 모던하고 여성스러운 터치를 가미한 량방 컬렉션의 하이톱 스니커즈는 우아한 원피스에도, 포멀한 펜슬 스커트에도 매치할 수 있을 만큼 감각적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스니커즈 전성시대

바야흐로 스니커즈의 전성시대다. 셀러브리티나 유명 패션 블로거들이 스타일리시한 스니커즈 스타일링을 선보이면서 패션과는 거리가 멀게 느껴지던 운동화가 스타일을 살려주는 트렌디한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것. 특유의 스포티하고 캐주얼한 느낌으로 주로 남성들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이제는 우아한 드레스에, 혹은 포멀한 수트에 스니커즈를 매치한 여성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발목이 높이 올라오는 하이톱 스니커즈는 평범한 스타일을 윈치 않는 스타일리시한 여성의 이목을 끄는 핫 아이템. 스커트나 쇼츠에 매치해도 어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레깅스, 스키니 진과 매치하면 활동적이면서도 발랄한 캐주얼 룩을 완성할 수 있다. 하이톱 스니커즈를 신을 땀 바깥단 이 어정쩡하게 내려오는 길이보단 발목이 드러나거나 레깅스처럼 피트되는 팬츠와 함께 매치하는 것이 더욱 멋스럽다.

페미닌한 감성의 하이톱 스니커즈

우아하고 여성스러운 감성과 실루엣을 선보이는 량방 컬렉션이 F/W 시즌 트렌드를 반영해 기존 컬렉션에서는 볼 수 없었던 유니섹스 스타일의 트렌디한 하이톱 스니커즈를 출시한다. 이는 기존 스니커즈보다 발목 부분을 높게 디자인한 스타일로, 편안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하게 연출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모던한 실루엣을 토대로 브랜드 아이덴티티인 여성스럽고 우아한 터치를 가미해 젊고 개성 있는 디자인이 돋보인다. 지퍼 디테일을 부착해 신고 벗기 편하도록 실용성을 더했을 뿐만 아니라 곡선형의 메탈 지퍼에 볼드한 로고 장식으로 볼륨감을 더했다. 또 앞코 부분과 보디 부분의 소재나 컬러를 달리해 감각적인 스타일을 완성했다. 컬러 또한 가을 겨울 시즌에 어울리는 다크톤 계열로 어떤 컬러의 의상과도 쉽게 매치할 수 있어 매력적이다. 청담 에비뉴 매장과 량방 컬렉션 매장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16-2591 에디터 권유진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앤티크한 느낌으로 처리한 지퍼 장식과 다크 그린 컬러가 멋스러운 하이톱 스니커즈, 다양한 컬러 배색이 조화를 이룬 하이톱 스니커즈, 핑크 골드 지퍼 디테일이 화려한 블랙 하이톱 스니커즈 모두 64만5천원, 길이가 느껴지는 와인 컬러 클러처백 79만5천원, 미니멀한 스퀘어 세이프가 톤보이는 토트백 82만5천원 모두 량방 컬렉션.





엄선된 브랜드. 다양한 컬렉션. 합리적인 가격. **LEGENDARY BRANDS. ABUNDANT SELECTION. REAL SAVINGS.** Adidas, Armani Stores, Andy&Debb, Bottega Veneta, Burberry, Brunello Cucinelli, Coach, Chloé, Coleman, Dior, Diane Von Furstenburg, Fendi, Hugo Boss, Nike Factory Store, Jil Sander, Michael Kors, Oakley, Polo Ralph Lauren, Roberto Cavalli, Tory Burch, Vivienne Westwood and more at savings of 25% to 65% every day. 브랜드는 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 140 STORES |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명품로 360 | 영동고속도로 여주 I.C. 진입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 160 STORES |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1790-8 | 자유로 금촌, 법흥리 방면 진입



PREMIUMOUTLETS.CO.KR | 1644 - 4001
 SHINSEGAE • SIMON

**PREMIUM
 OUTLETS®**
Shop Brilliantly



여행의 미학을 품은 예술, 가방을 수놓다

art of Travel

여행용 가방의 대명사 격인 샘소나이트가 예술을 담은 트렁크 시리즈를 최근 서울에서 열린 아트 페어 KIAF에서 공개했다. 국내 작가 4명과 손잡고 여행과 수트케이스 그리고 예술의 의미 있는 만남을 시도한 아트 콜라베이션 프로젝트의 창의적인 결과물이다. 여행의 미학을 추구하는 브랜드 샘소나이트의 진화하는 여성이 눈여겨볼 만하다.

최근 여행 산문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는 인기 작가 이병률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여행은 상상의 뼈대가 되고 창조의 살이 된다'고 했다. '여행용 가방의 대명사'라 해도 무방할 만큼 대중적으로 가장 탄탄한 지도를 확보한 브랜드 샘소나이트(SAMSONITE)는 이처럼 예술적 창의성의 뼈와 살이 되는 '여행의 미학'을 트렁크에 펼쳐 보이는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각자 색채가 다른 국내 미술계의 역량 있는 작가들과 손잡고 '여행'이라는 소재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창조된' 가방을 선보이는 콜라베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한 것이다. 황주리, 자유호, 손진아, 차민영 등 4명의 작가에게 주어진 공식 주제는 'A Unique Travel'. 여행이라는 가치를 저마다의 방식으로 풀어낸 이들의 작품은 지난 9월 중순 개최된 아시아 지역의 대표적인 미술계 잔치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에서 선보여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수많은 미술 작품의 화려한 향연 속에서 당당히 자태를 드러낸 샘소나이트의 아트 콜라베이션 작품은 단순히 실용적인 도구로서의 트렁크가 아니라 '여행의 예술'을 추구하는 브랜드의 도전 정신과 열정을 다채롭게 수놓은 창조적 산물로서의 정체성을 주장하는 듯했다.

세계 곳곳을 돌며 각양각색의 돌과 인경, 그림엽서를 모아왔다는 황주리 작가는 '여행은 지는 해를 잡으려는 몸짓이고, 그 햇살의 온도를 오래 간직하는 일'이라고 정의하며 여행에 관한 명상을 한 바다 써 내려갈 만큼 여행을 사랑하는 인물이다. 자신의 추억이 얽힌 그림과 우표로 빼곡히 채운 여행용 트렁크가 인상적이다. 아마도 삶의 단상을 절로 떠올리게 하며 관람객들의 발길을 가장 오래 붙든 '주인공'은 차민영 작가의 작품 2점일 것이다. 병상의 아버지가 답답한 공간에서 탈출하기 위해 가방에 짐을 꾸리던 모습을 떠올리며 디자인했다는 산소통 형태의 '에어 트렁크(Air Trunk)', 그리고 자유와 가능성을 상징하는 여행 가방의 이미지와 대조적으로 반복적인 패턴 속에서만 움직이는 도시의 전철과 현대인의 관계를 역설적으로 표현한 '서브웨이 수트케이스(Subway Suitcase)'가 바로 그것이다. 시각적 효과가 강력한 문양과 기방 앞·뒷면의 대비가 돋보이는 손진아 작가의 작품, 그리고 샘소나이트의 삼손(Samson)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사자 머리 형상을 트렁크에 접목한 자유호 작가의 작품도 흥미로웠다. 트렁크에 담긴 샘소나이트의 '예술 여정'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지난해 '산림의 해를 맞아, 소나무 연작으로 유명한 사진작가 배병우 씨와 협업했던 샘소나이트는 10월에는 이용백 작가와 함께 반전과 평화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Angel Soldier' 시리즈를 토대로 한 아트 콜라베이션을 전개할 예정이다. 샘소나이트는 이러한 활동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전부 패션 디자이너 이광희 씨가 설립한 NGO 단체 '희망의 망고나무'에 기부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시대정신을 동반한 순수예술을 바탕으로 한 협업을 통해 브랜드의 감성적 영역을 꾸준히 넓혀나가고자 하는 샘소나이트의 미학적 여정이 주시되는 또 하나의 이유다. 에디터 고성연

1 지난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국제아트페어(KIAF) 2012에서 여행 가방의 미학을 펼쳐 보인 샘소나이트의 부스. 사진 왼쪽의 트렁크는 이용백 작가의 콜라베이션 작품으로 6백 개 한정으로 10월에 선보일 예정이다. 2 자구촌을 누비며 모은 그림엽서, 어릴 적부터 수집해온 우표 등 '여행'에 관한 명상을 담아낸 황주리 작가의 작품. 55X82X33cm 3 살의 다음 여정을 준비하며 샘소나이트 가방에 짐을 꾸리던 아버지에 대한 단상을 작품으로 녹여낸 차민영 작가의 '에어 트렁크(Air Trunk)', 55X79X34cm 4 샘소나이트라는 브랜드명에서 따 '삼손(Samson)'에서 영감을 얻어 사자 머리 형상을 트렁크에 접목한 자유호 작가의 인상적인 작품. 55X79X34cm 5 시각적 효과가 뚜렷한 화려한 문양과 기방 앞·뒷면의 대비가 돋보이는 손진아 작가의 작품. 손잡이는 여행을 정체인 일상의 승관에서 벗어나 '낯선'을 찾는 과정으로 바라보았다고. 55X82X33cm



ES 350을 만나고
기대가 감탄으로 바뀐다

ES makes change

NEW **ES 350**
GENERATION



 LEXUS

www.lexus.co.kr

렉서스 전시장 서초 080-924-9000, 용산 080-799-0500, 강남 080-555-3579, 강서 080-924-9001 | 분당 080-683-5000, 일산 080-961-0500, 수원 080-200-3579, 용인광교 080-688-5000, 판교 080-739-5000
인천 080-330-4300 | 부산 080-310-7000, 해운대 080-858-1500 | 창원 080-858-7711 | 전주 080-236-7743 | 광주 080-384-7733 | 대구 080-762-7000 | 포항 080-293-7000 | 대전 080-500-3369 | 천안 041-569-3368
정부공인 표준연비 및 등급: ES 350(배기량 3,456cc, 공차중량 1,630kg, 자동 6단), 복합연비: 10.2km/ℓ(도심연비: 8.8km/ℓ, 고속도로연비: 12.8km/ℓ), 복합 CO2배출량: 173g/km, 등급: 4등급 *이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에 따라 실행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classic Chic

여성스럽고 모던한 디자인,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완벽한
마감과 디테일, 그리고 최상의
소재로 완성한 토즈의 여성
액세서리 컬렉션은 완벽과 혁신을
추구하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이번 F/W
시즌 토즈의 여성 컬렉션은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반영해 기존
라인에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디자인과 풍부하고 깊은 컬러,
진귀한 가죽 소재를 사용해 더욱
우아하고 럭셔리해진 모습으로
가을의 문을 열었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깊이가 느껴지는 그린 컬러가 멋스러운 페이퍼트 시그처 토트백 40X30cm 2백34만원.
부드러운 양털로 포인트를 준 스니커즈 뉴 D백 30X20cm 4백51만원. 위치할 형태로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하는 스트랩 디
테일의 스웨이드 앵클부츠 1백16만원. 메탈릭한 컬러가 트렌디한 페이퍼트 태슬 로퍼 77만원. 브론즈빛 메탈 컬러와 고
무 플리트 밑창으로 재탄생한 브랜드 아이코닉 아이템 스니커즈 윈터 고미노 90만원대. 군더더기 없이 매끈한 라인이 돋보이
는 페이퍼트 펌프스 1백만원대. 자연스럽게 주름이 잡히는 유연한 디자인으로 인감과 가방 라인에 앙탈로 포인트를 준 시
그처 빅 숄더백 30X30cm 가격 미정. 자브라 프린트를 메탈릭하게 표현한 고미노 드라이빙 슈즈 60만원. 모두 토즈.

the Shoes

토즈는 이번 시즌 장인 정신이 느껴지는 완벽한 디테일과 마감, 유행을 타지 않는 모던하고 세련된 디자인에 주목해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다양한 라인의 슈즈 컬렉션을 선보인다. 이는 특별하고 진귀한 고급 소재만 사용해 럭셔리함을 더한 것은 물론, 유니크하면서도 여성스러운 라인으로 캐주얼과 클래식 룩에 모두 매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주 가벼운 플라토 밑창의 몽크 스트랩 앵글부츠부터 레오파드 프린트로 재탄생한 고미노 슈즈, 클래식하면서 모던함을 동시에 표현한 컬러풀한 스웨이드 로퍼까지, 한층 우아하고 세련된 새로운 디자인이 돋보인다.

(왼쪽부터 차례대로) 날렵한 코와 모던한 디자인이 세련된 산뜻한 오렌지 컬러의 스웨이드 로퍼 66만5천원, 클래식한 감성이 느껴지는 버클 디테일의 몽크 스트랩 앵글부츠 1백20만원, 워커 디자인을 여성스럽게 재해석한 스웨이드 앵글부츠 1백20만원, 럭셔리한 송치기족을 사용해 레오파드 패턴을 연출한 고미노 드라이빙 슈즈 75만원, 모두 토즈.



the Bags

기존의 아이코닉한 백을 재해석한 디자인부터 새롭게 선보이는 뉴 컬렉션까지, 2012 F/W 토즈 백 컬렉션은 한층 다채로워졌다. 아이코닉 아이템인 미키 백은 둥근 형태의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발전했는데, 각 부분의 이음매를 미구 제조술을 적용해 직접 손으로 완성한 것이 특징이다. 클래식 D백은 겉면은 물론 인감 전체를 최고급 가죽을 사용해 럭셔리한 백으로 재탄생했으며, 이 밖에도 메탈 소재의 클립형 잠금장치와 포인트인 투톤 컬러의 오버사이즈 클러처백과 페이턴트 시그너처 클러처는 세련되고 감각적인 룩을 연출하기에 제격이다. 문의 02-3448-8198 에디터 권유진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메탈 클로저가 포인트인 투톤 컬러의 소가죽 줄리 클러치 30X22cm 1백36만5천원, 고급스러운 파이론 소재의 미키 백 40X30cm 가격 미정, 청록색이 세련된 소가죽 뉴 D백 30X20cm 1백36만5천원, 인디언 핑크 컬러와 페이턴트 소재가 여성스러운 시그너처 클러치 28X18cm 1백36만5천원, 모두 토즈.



urban Legend

남자의 구두는 단지 디자인만으로는 완벽해질 수 없다. 우아함, 절제된 럭셔리, 흠잡을 데 없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브랜드 토즈. 그중에서도 남성을 위한 슈즈 컬렉션은 이탈리아 남성의 진한 향기가 그대로 느껴진다.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Italian Portraits

남자에게 구두라는 것은 패션은 물론 라이프스타일까지 표현하는 상징적인 존재다. 아무리 멋진 수트도 완벽한 슈즈 없이는 완성할 수 없고, 자연스러운 멋 역시 절제된 매력을 담은 슈즈에서 피어난다. 남자의 패션으로 가장 유명한 곳은 어디일까? 바로 이탈리아다. 백발의 노인도 화려한 컬러의 수트를 입고, 작은 생화를 헝커치프 대신 양복 깃에 꽂는 부토니에 역시 이탈리아의 디테일이다. 패션의 완성도는 물론 스타일링, 컬러 매치까지 가장 돋보이는 남성의 룩, 유티가 넘치는 클래식한 패션의 고장이 바로 이탈리아인 것이다. 이탈리아 남성들의 룩을 찬찬히 살펴보면 소재가 좋은 수트와 클래식한 슈즈가 기본이다. 이 두 가지만 갖추면 컬러가 화려한 셔츠를 입어도, 짙은 와인 컬러 양말을 신어도 튀지 않고 멋진 스타일로 인정받는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브랜드 토즈의 다양한 남성 슈즈는 남성들이 원하는 편안함과 특별함을 모두 담고 있다. 기본기에 충실한 토즈의 슈즈는 어떤 옷이나 편안하게 매치할 수 있지만 과장되지 않고, 꾸미지 않은 듯 자연스럽다. 그렇다면 토즈가 추구하는 가장 멋진 남성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 해답은 바로 토즈가 새롭게 선보인 커피 테이블 북인 <이탈리언 포트레이트>에 담겨 있다. 화보 형식으로 구성된 이 특별한 책은 테이블 위에 놓아두고 천천히 넘겨 볼 수 있는 묵직한 책이다. 토즈는 이전에도 다양한 콘셉트로 이탈리아 스타일의 매력을 보여주는 커피 테이블 북을 선보인 바 있는데, 지난 6월 선보인 <이탈리언 포트레이트>에는 이탈리아 남성들의 우아한 라이프스타일의 순간을 포착한 사진이 담겨 있다.

흑백사진부터 컬러까지,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 삶을 추구하는 방식부터 패션 스타일까지, 남성들이 원하는 모습을 그대로 옮겨놓았다. 수트를 갖춰 입고도 편안해 보이는 남성들의 모습, 이탈리아의 강렬한 태양 아래서 더욱 빨갛게 빛나는 스포츠카, 소파에 누워 흐트러진 듯 편안한 모습을 담은 수많은 사진을 통해 이탈리아 남성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엿볼 수 있다. 또 사진에서는 세련된 감각과 윤리적인 태도, 이탈리아의 전통이 자연스럽게 배어 나온다. 현대적이면서도 전통을 지키는 이탈리아 남성들의 삶의 태도를 통해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는 것이다. 이렇듯 토즈가 추구하는 남성들에게 어울리는 패션의 핵심은 슈즈다. 겉모습이 화려하기보다는 실용적이면서도 우아해야 하고, 어떤 패션이나 매치할 수 있는 까다로운 조건을 갖춰야만 한다.

현대적인 클래식의 탄생, 고미노

토즈 슈즈는 기본적인 형태를 안정감 있게 완성하기 위해 소재를 손으로 커팅하는 것은 물론 가죽 조각들을 바느질하기까지 1백여 단계 이상의 세밀한 과정을 거쳐 완성한다. 시그니처 슈즈는 35개의 가죽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조각은 완성하기 전까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하나 하나 손으로 그 형태를 확인한다. 모든 과정이 핸드메이드로 이루어지는데, 이는 각 분야의 특별한 장인들의 손길 없이는 불가능한 공정이다. 가방 역시 슈즈와 같은 과정을 통해 제작된다. 이러한 제작 과정은 장인들이 고대 말안장을 만드는 방법과 유사하다. 안전과 편안함, 내구성을 위해 빈

틈없이 각각의 가죽 조각이 맞추어져야 하기 때문에 극도의 기술력과 집중력으로 가죽을 자르고, 가죽의 결과 형태에 맞게 바느질해야 한다. 그중에서도 토즈를 대표하는 것은 바로 고미노(Gommino) 슈즈다. 화려한 컬러의 로퍼들을 매장에서 처음 맛드셨을 때는 '남자가 과연 저런 컬러를 소화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지만, 클래식한 수트를 더욱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바로 고미노 슈즈다. 토즈의 모카신인 고미노 컬렉션은 럭셔리 슈즈로 굉장히 유명하지만, 실제로 토즈가 이러한 모카신의 형태에 페블을 접목하기 이전에는 모카신이라는 것은 단지 편안한 이지 웨어에 어울리는 평범한 슈즈에 불과했다. 1950년대에 차안에서 신던 드라이빙 슈즈일 뿐이었던 모카신에 토즈가 이탈리아의 장인 정신과 실용성을 담아 어떤 상황에서든 완벽하게 어울리도록 다양한 기법과 색상을 도입했고, 지금은 클래식한 슈즈 중 하나로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소재 역시 스웨이드부터 가죽, 패브릭, 악어와 오스트리치 같은 이그조틱 레더까지 다양하지만 편안함과 우아한 스타일만은 모두 동일하다. 수트에 매치할 수도 있고, 캐주얼에도 쉽게 매치할 수 있다. 토즈 고미노 슈즈의 트레이드마크는 슈즈 밑창에 1백여 개 이상 부착되어 있는 고무 페블 장식이다. 이는 실용적인 것은 물론 토즈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더욱 강력하게 만드는 시그니처가 되었다.

Made In Italy

토즈의 모든 제품은 이탈리아에서 만드는데, 이는 바로 토즈의 장인 정신을 보여주는 부분이다. 모든 제품은 초기 제

다양한 소재를 활용한 토즈의 남성 슈즈 컬렉션. (왼쪽부터 차례로) 좋은 가죽을 사용해 멋진 광택을 느낄 수 있는 옥스퍼드 슈즈, 진한 버건디 컬러 태슬 장식 로퍼, 페이턴트 소재의 블랙 레이스업 슈즈, 수트와 캐주얼에 모두 잘 어울리는 블랙 로퍼, 앤티크 가죽으로 만든 빈티지 브라운 앵글부츠, 슈즈 바닥의 고무 소재 페블이 돋보이는 오렌지 컬러 고미노 슈즈, 그레이 컬러 스웨이드 소재 레이스업 윈터 고미노 부츠.

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판매까지 일정한 관리와 연구를 거쳐 완성된다. 어떤 가죽을 사용했는지와 가죽을 다루는 방식, 바느질한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면 역시 이탈리아 브랜드라는 생각에 고개를 끄덕이게 된다. 제품의 다양성과 트렌드를 빠르게 받아들이는 것도 토즈의 매력이다. 클래식함을 기본으로 하지만 실용적이고 새로운 디자인을 받아들이는 데도 주저하지 않는다. 기존에는 고미노와 캐주얼한 슈즈가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클래식한 디자인부터 캐주얼한 스타일의 앵글부츠까지 다양한 디자인을 출시했다.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편안함과 착용감이 뛰어나다는 것이다. 수트와 잘 어울리는 가죽 소재 로퍼 역시 바닥 앞쪽에 고무를 이용한 밑창을 활용해 더욱 편안하다. 디자인은 클래식하지만 착용감은 고미노만큼이나 뛰어나기 때문에 이탈리아 브랜드, 핸드메이드 슈즈를 이야기할 때 토즈를 빼놓을 수 없는 것이다. 신으면 신을수록 자연스러운 광택이 느껴지는 가죽, 슈즈의 레이스 하나, 디테일 하나도 모두 이탈리아의 정신을 담고 있다. 지금까지 클래식한 슈즈는 모두 불편하다고 여겼거나, 슈즈를 선택하는 기준을 찾기 어려웠다면 이제 토즈라는 이름을 기억해야 한다. 이탈리아 남성들의 은근한 멋과 우아함에 편안함을 더한 브랜드라면 무엇을 선택해도 후회가 없을 것이다. 에디터 배미진



Modern elegance

(가운데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파이톤 소재 레드 컬러 장지갑 75만원 **나나리치**, 스웨이드 소재 그린 컬러 펌프스 98만원 **지안비토 로시**, 클래식한 버건디 컬러의 사철 백 3백98만원 **마크 크로스**, 손에 착 달라붙는 착용감이 일품인 가죽 장갑 18만원 **세르모네타**, 실리콘 몰드 소재 핑크 목걸이 78만원 **EK 톱프라스트**, 빈티지한 멋이 묻어나는 플랫폼 롱부츠 1백34만원 **사르토투레**.



Rock chic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파이톤 텍스처가 느껴지는 소가죽 호보백 1백78만원 **제롬 드레퓌스**, 반짝이는 소재에 강렬한 스타드 장식으로 화려함을 강조한 스니커즈 53만원 **지엔키**, 해골 스타드 장식의 블랙 클러치백 3백30만원 **토마스 와일드**, 스와로브스키 실버 앵글 가격 미정 **툼 빈스**, 슈즈 앞코에 골드 스타드 장식으로 룩적인 무드를 가미한 페이턴트 옥스퍼드 슈즈 85만5천원 **발렌티노**.



most **Wanted**

멋과 문화에 민감한 트렌드세터가 주목하는 한남동에 멀티 액세서리 스토어 '코브누아(Courbe Noir)'가 오픈했다. 어떤 상황과 옷차림에도 완벽하게 어울릴 만한 슈즈와 백, 액세서리를 총망라한 이곳에서 당신의 스타일 지수를 업그레이드하라.
photographed by yum jung hoon

Bold gold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영국의 빈티지 수집상 리와인드의 빈티지 사철 숄더백 7백만원 **리와인드**, 매끈한 라인과 견고한 가죽이 돋보이는 토트백 8백85만원 **멜보**, 골드 트리밍 부티 1백35만원 **쥬세페 자노티**, 로만 양식의 진주 디테일이 특징인 빈지 83만원 **멜피나 엘레트레즈**, 포인트 액세서리로 제각인 골드 네크리스 2백10만원 **오렐리 비더만**, 골드 큐브 장식의 플랫폼 슈즈 75만원 **피에르 하디**.



Wild funk

(가운데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레오파드 프린트 백백 2백55만원 **피에르 하디**, 밝은 베이지 컬러의 여우털 머플러 78만원 **32 파라디**, 골드 스와로브스키로 장식한 블랙 컬러 슬림온 슈즈 1백85만원 **쥬세페 자노티**, 깃털 장식 헤어핀 각각 20만원 **매종 미헬**, 빈티지 사철 숄더백에 금속 장식으로 위트를 살린 체인 숄더백 4백98만원 **히스토리 바이 달란**, 문의 02-3785-2012 에디터 **이예진**





RENEEVON

www.reneevon.co.kr LOTTE 본점 02 778 9689 청담점 02 2143 7444 대구점 053 660 3328 부산점 051 810 3237
동대점 051 688 4283 SHINSEGAE 강남점 02 3479 1315 경기점 031 695 1317 센텀시티점 051 745 2425 HYUNDAI 신촌점 02 3145 2281
신촌점 02 474 8108 대구점 053 245 2357 Information 02 3438 9100 e-shop/ www.idlookmail.com





red passion Story

열정적이며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레드 아이콘 김윤아가 닥스의 클래식한 아름다움을 담은 2012 F/W 룩을 완성했다. 릴렉스드 클래식 닥스 레드 라벨이 전개하는 레드 캠페인의 두 번째 열정 스토리에 주목해보자.

1

레드 아이콘 김윤아의 두 번째 열정 스토리

릴렉스드 클래식 닥스 레드 라벨이 전개하는 레드 캠페인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는 젊은 여성들이 가장 닮고 싶어 하는 열정의 아이콘을 선정해 보다 많은 닥스 레드 라벨 고객과 공유하는 프로젝트. 레드 캠페인과 함께할 첫 번째 아이콘으로는 가수 김윤아가 선정되었다. 자신만의 확고한 음악 세계를 인정받은 그녀는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로서의 삶을 살면서도 열정적이며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보여주어 젊은 여성들이 닮고 싶어 하는 아이콘으로 꼽히곤 한다. 닥스만의 우아하고 매혹적인 가을 룩을 선보인 첫 번째 촬영에 이어 2012 F/W 룩으로 완성한 두 번째 화보를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첫 번째 촬영보다 훨씬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등장한 그녀는 메이크업이나 헤어스타일에 변함이 없는데도 훨씬 밝고 긍정적인 오라를 뿜어냈다. 그녀는 이에 대해 “제가 진심으로 열정을 갖고 이 작업에 임했기 때문일 거예요. 무슨 일이든, 어떤 상황에서도 진심으로 노력하면 그만큼 놀라운 변화가 생기곤 하죠”라고 말했다. 첫 촬영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연구를 많이 했다는 대목에서는 레드 아이콘다운 면모를 느낄 수 있었다. 오리지널리티는 그대로 간직하면서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고, 이러한 작업을 통해 오랫동안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야말로 닥스 레드 라벨이 지향하는 가치관이자 김윤아가 추구하는 방향과 맞닿아 있다. 그녀가 자신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일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기준이나 잣대에 치우치기보다는 실패를 거듭하더라도 자신에게 가장 잘 맞는 스타일을 찾기를 바라고 때문이다. “닥스 레드 라벨의 아이콘이 된 것이 무척 자랑스러웠어요. 오랜 세월 변함없이 그 가치를 인정받아온 브랜드의 아이콘이 된다는 것은 진심으로 기분 좋은 일이지요. 또 저의 가치를 닥스 레드 라벨을 통해 여러 여성들과 나누게 되어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2012 F/W 화보가 지난번보다 더 좋은 평가를 받기를 바란다는 김윤아의 바람처럼, 닥스만의 클래식한 우아함이 녹아든 매혹적인 겨울 룩을 만날 수 있다.

영 브리티시 스타일, 닥스 레드 라벨

영국 헤리티지 브랜드 닥스가 론칭한 ‘닥스 레드 라벨’은 여성들이 꿈꾸는 젊고 아름다운 삶, 오랫동안 사랑받는 변함없는 가치가 ‘열정’에 있다는 판단으로 탄생한 브랜드. 열정을 상징하는 레드 컬러를 브랜드 네이밍에 집착했으며, 20~30대의 젊은 층을 타겟으로 한다. 이는 닥스가 국내 진출 30주년을 앞두고 중장년층이 주를 이루는 기존의 고객층에 젊은 층을 아울러 논에이지 브랜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릴렉스드 클래식’을 콘셉트로 하는 닥스 레드 라벨은 가장 편안한 동시에 아름다워 보이는 스타일을 추구한다. 닥스 오리지널 컬렉션보다 실루엣은 슬림해졌으며, 대담한 프린트를 사용하는 가 하면 시그너처 체크 프린트를 모던하게 응용한 아이템을 선보인다. 이번 2012 F/W 시즌에는 캐멀과 그레이, 네이비 컬러를 바탕으로 레드 컬러를 포인트로 사용했다. 오버사이즈 코트를 비롯해 도톰한 짜임의 니트와 모헤어 소재의 폴오버, 트위드 재킷을 선보이며, 아이코닉한 체크 패턴은 케이프 형식의 아우터와 안감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었다. 문의 02-515-9895 에디터 **이예진**

2



3



1 촉감 좋은 터블릭 니트와 스트레이트 팬츠에 솔라라 디자인의 오버사이즈 코트를 입어 포근하면서도 따뜻한 겨울 룩을 완성했다.
2 케이프 형태의 아우터에는 닥스의 아이코닉한 체크무늬를 전면 활용해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준다. 이너 웨어로 크림색 니트 터블릭을 선택하면 품격 있는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
3 소매 부분에 니트 핸드 워머가 달린 박시한 실루엣의 더블 브레스티드 코트에 플레어스커트를 매치했다. 장갑과 모자 등 소품을 활용하면 완벽하다.

전용 슬로프에서 기다림 없이 즐기는
프리미엄 스키 휴가



스키, 스노보드 강습까지 포함된 프리미엄 올 인클루시브 스키 휴가
SKI BONUS NIGHTS, 리조트 최대 3박 FREE!

▶ 훗카이도 사호로, 중국 야불리, 그리고 유럽 알프스 지역 스키 리조트

예약기간: 8월 16일 ~ 10월 31일 출발일: 2012년 11월 30일 ~ 2013년 3월 30일

클럽메드 프리미엄 올 인클루시브 패키지



왕복 항공권
공항 픽업
서비스

+



타입별로
제공되는
다양한 객실

+



1일 3식의
다채로운
레스토랑

+



오픈바에서
즐기는
무료 음료와 주류

+



어린이를 위한
연령별
키즈 클럽

+



스키, 스노보드
강습 및
레저 액티비티

+



매일 밤
나이트
엔터테인먼트

Special
Coupon

Style^{조선일보} 독자를 위한 클럽메드 특별 혜택

이름과 연락처(휴대폰) 기재 후, 본 쿠폰을 사진으로 찍어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2012/13 시즌 스키리조트 예약시 이용하실 수 있는 10만원 모바일 할인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메일 보내주실 곳 : korea.sales@clubmed.com

이름 _____ 연락처(휴대폰) _____

예약 문의 | 02-3452-0123
www.clubmed.co.kr

Club Med Ψ
WHERE HAPPINESS MEANS THE WORLD

all night Long

깊이 잠든 시간만큼 피부가 편안한 순간이 있을까. 하루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잠들기 전, 잠깐의 트리트먼트만으로도 다음 날 아침 달라진 피부를 확인할 수 있다. 단 5분의 투자로 더욱더 촉촉해질 수 있는 나이트 안티에이징 제품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차례대로) 샤넬 이드라 막스+ 액티브 모이스춰 마스크 수분 라인의 핵심 제품으로 끈적임이 없고 사용감이 신뜻하다. 충분히 마사지 한후 바로 씻어내거나, 비르고 다음날 아침 세안해도 효과적이다. 75ml 8만2천원, 문의 080-332-2700

설화수 여운팩 잡지는 사이에 피부를 더 윤기 있게 해주는 수면 팩은 나이트 안티에이징에 빼놓을 수 없는 제품이다. 설화수의 여운 팩은 당귀와 석류 성분을 함유해 피부 순환을 촉진할 뿐 아니라 호두 추출물과 생백미 추출물이 피부 탄오버 능력을 향상시킨다. 잠들기 전 얇게 비르고, 다음 날 아침 가볍게 씻어내면 된다. 120ml 5만2천원대, 문의 080-023-5454

달랑 이로부터 리뉴잉 밤 한 번이라도 사용해본 적이 있는 사람이 라면, 밤 타임 화장품의 새로운 매력을 깨닫게 해주는 제품이다. 가나산 아프리카 시어버터와 만다린, 캐머마일, 자몽, 스위트 오렌지 등 다양한 에센셜 오일을 블렌딩해 건조하고 민감한 피부에 효과적이다. 건조한 피부를 즉각적으로 촉촉하게 만들기 때문에, 잠들기 전 얇게 펴 비르기만 하면 된다. 일주일 2~3회만 사용하면 충분하다. 15ml 10만원대, 문의 02-3440-2786

겔랑 아베이 로얄 나리싱 나이트 크림 밤팔에서 추출한 퓨어 로열 농축액을 담은 독특한 안티에이징 화장품. 고농축된 로열젤리가 피부의 미세한 균열을 완화해주며 얼굴 윤곽 라인을 교정하는 효과가 있다. 50ml 25만4천원, 문의 02-3438-9627

로라 메르시에 멀티비타민 세럼 요즘은 인정받은 비타민이 많지만, 빛에 약한 비타민 성분의 제품은 밤에 사용하는 것이 마음이 놓

인다. 로라 메르시에의 멀티비타민 세럼은 고농축 비타민 제품으로 비타민 성분이 콜라겐을 자극해, 소량으로도 실크 같은 피부를 만들 수 있다. 워터 베이스와 오일 베이스 제품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15mlx2 10만8천원, 문의 02-514-5167

클라린스 쉐이빙 페이스 리프트 램 V 마스크 부기 제거에 효과적인 마스크 제품. 냉장고에 넣어 차갑게 해서 사용하면 효과가 극대화된다. 다음 날 아침 얼굴이 붓는 것을 방지하는 데 확실한 효과를 발휘한다. 얼굴 전체에 바른 뒤 10분 후에 씻어내면 된다. 75ml 6만5천원, 문의 080-542-9052

에스티 로더 퍼펙셔니스트 [CP+R] 리프트 퍼밍 세럼 아미노산과 단백질 복합체를 담아 피부 본연의 콜라겐 생성 능력을 최대화하는 안티에이징 세럼. 피부 속 지지 구조를 더욱 단단하게 해 탄력 있는 피부를 만들어준다. 잔주름과 굵은 주름에 모두 효과적이다. 50ml 18만5천원대, 문의 02-3440-2772

랑콤 비지오네르 크림 피부의 깊은 곳까지 전달되는 분자 LR2412는 비지오네르 제품 라인의 핵심 안티에이징 성분이다. 이 크림에는 손가락 모양에서 착안한 폴리싱 패드가 들어 있는데, 2천여 개 이상의 마이크로 입자의 폴리싱 먼이 피부결을 정리하고 마사지 효과를 낸다. 50ml 12만원, 문의 080-022-3332

디올 캡춰 토탈 나이트 크림 줄기세포 화장품으로 주목받은 디올 캡춰 토탈 시리즈의 크림. 칼리닌시 활성 성분이 피부 재생력을 높여준다. 주름 개선과 색소침착을 한 번에 해결하는 만능 크림이다. 50ml 19만8천원, 문의 02-3438-9529 에디터 배미진



future Skin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안티에이징 케어도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 5년, 10년 후 남들과는 다른 건강하고 젊은 피부를 유지하고 싶다면 피부 깊숙이 안티에이징 유효 성분을 전달해 초기 노화에 따른 스트레스 고리를 끊어주는 아모레퍼시픽 퓨처 레스폰스 에이지 디펜스 세럼이 그 해답을 알려줄 것이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피부 노화에 대한 스트레스의 고리를 끊다

피부 노화는 20대를 시작으로 시간이 갈수록 가속도가 붙는다. 이는 일찍부터 안티에이징 케어를 잘해두면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띄는 주름이 나타난 후에야 노화에 대한 긴장과 위기감을 느낀다. 하지만 실제 피부 노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피부 속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노화가 시작되는 시점인 20대부터 관리해 초기 노화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외선, 환경오염, 각종 외부 유해 환경과 자극으로 노화하는 피부와 이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는 마치 풀리지 않는 문제처럼 지긋지긋하게 반복되기 일쑤. 이를 위해 아모레퍼시픽은 스트레스의 고리를 끊고 피부의 초기 노화를 개선하는 '퓨처 레스폰스 에이지 디펜스 세럼'을 선보인다. 이는 환절기에 급격하게 찾아오는 피부 노화와 스트레스에 대한 약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신개념 안티에이징 세럼. 이 제품의 핵심 성분은 바로 강력한 항산화·트리플 예방 효과가 있는 아모레퍼시픽만의 독점 성분 퓨처 레스폰스 콤플렉스™다. 이는 녹차 다당체와 송이버섯 추출물로 이루어진 복합체로 외부 자극 요소가 피부 속으로 유해 신호를 전달할 때 활성화되는 폴루션 안테나를 차단해 피부 노화를 유도하는 산화 반응과 염증 반응을 조기에 예방하는 것이 특징이다. 폴루션 안테나라는 피부 노화의 원인인 유해 신호를 감지하는 피부 속 생체 안테나로, 피부는 이 안테나를 통해 노화가 활성화되는 특성이 있다. 이처럼 폴루션 안테나와 노화의 연결 고리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퓨처 레스폰스 콤플렉스™인 것. 또 브랜드의 혁신 기술인 그린티 모노셀 테크놀로지™가 녹차 세포의 안티에이징 성분인 EGCG와 데아닌을 캡슐화해 손상 없이 피부 깊숙이 전달하고, 오랜 시간 동안 피부 속에서 작용하게 해 24시간 지속적으로 안티에이징 효과를 발휘한다. 더불어 피부 세포와 유사한 생체 이중막으로 이루어진 모노셀이 수분을 지속적으로 공급해 기존 보습력과는 차별화된 촉촉하고 풍부한 보습력을 느낄 수 있다.

조기 노화를 예방하는 신개념 세럼

퓨처 레스폰스 에이지 디펜스 크림의 꾸준한 인기에 힘입어 새롭게 출시하는 퓨처 레스폰스 에이지 디펜스 세럼은, 기존 크림에 비해 그린티 모노셀 테크놀로지™를 2배 이상 함유했으며 세럼 한 병에 무려 6천3백 개의 녹차 세포를 담은 집중 트리트먼트 세럼이다. 그 때문에 보다 집중적인 케어와 빠른 효과를 느끼고 싶을 때 사용하면 큰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열 가지 아시안 보태니컬 성분의 강력한 항산화 효과로 피부 노화를 예방하는 것은 물론 뛰어난 항염·자극 완화 작용으로 피부 트러블을 진정시키는 데도 효과적. 살구씨의 고농축 세럼 제형은 끈적임 없이 빠르게 흡수되어 피부 속부터 느껴지는 촉촉함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장점이다. 30ml 22만원. 문의 080-023-5454 에디터 권유진



CLARINS
PARIS

Double Serum®
(Hydric + Lipidic System)

Traitement Complet
Anti-Âge Intensif

Complete Age Control
Concentrate

double action Perfect

건강을 위한 필수영양소가 있듯, 아름다운 피부를 위해서도 다양한 영양분이 필요하다. 물론 천연 성분이라면 더 좋을 것이다. 특별한 천연 성분을 피부 깊숙이 전할 수 있도록 고안한 클라란스의 안티에이징 세럼, '더블세럼'을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피부를 위한 멀티비타민, 더블세럼

피부 노화는 나이가 들면서 일어나는 내인성 노화와 외부적인 요인의 외인성 노화로 나누어진다. 내인성 노화는 인간의 힘으로 속도를 늦추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외인성 노화는 다양한 환경적 원인에 의해 좌우되므로 조절 가능하다. 특히 피부 노화는 20대 중반부터 시작해 30대 초·중반에 급격히 진행되므로 적극적인 예방과 개선이 필요하다. 1985년에 처음 선보인 후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며 클라란스의 대표 세럼으로 자리 잡은 더블세럼은 수분·영양·산소 공급, 피부 보호, 피부 재생 등 피부의 다섯 가지 필수 기능을 촉진, 탄탄하고 매끈한 피부로 회복할 수 있게 돕는다. 필립 셰어러(Philip Shearer) 클라란스 그룹 CEO는 “피부의 미래를 위한 준비로 더블세럼을 사용해야 한다”고 전한다. 젊었을 때는 예방 차원에서 사용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화를 늦추기 위한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

피부의 이중성에서 착안한 테크놀로지 접목

클라란스는 생체의 특징에 대한 섬세한 접근을 통해 제품을 개발한다. 더블세럼 또한 피부 저항력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제작됐다. 유수분층으로 이루어진 피부 표면과 피부 세포의 이중성을 그대로 옮겨 이와 가장 유사한 포몰러로 만든 것. 이른바 ‘하이드릭+리피딕 시스템’으로 워터 베이스와 오일 베이스로 이루어진 듀얼 포몰러다. 글로 설명하면 복잡할 듯하지만, 사실 물과 오일이 섞인 끈적임 없이 산뜻한 텍스처다. 손등에 펴뿜할 때는 마치 질감이 가벼운 물 같은 텍스처이지만, 얼굴에 바르면 물보다 촉촉하고 피부 전체를 감싸는 오일의 감각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기존 오일의 단점인 끈적임이나 번들거림, 결도는 현상은 찾아볼 수 없다. 두 가지 텍스처의 장점만을 모은 독특한 텍스처이기 때문이다. 이 텍스처는 단순히 사용감만 개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티에이징 효과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 피부 세포가 자연적으로 갖추고 있는 천연 유수분 보호막을 모델로 한 것인 만큼 피부 흡수력을 높여주는 데 효과적이다. 각 성분의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패키지에 ‘더블 펌프 시스템’을 적용해 두 가지 세럼 성분이 섞이지 않도록 했다. 수분과 유분으로 구분되는 포몰러를 2개의 분리된 공간에 담았으며 각각의 포몰러는 펌핑 시 섞여 나온다. 그러나 펌핑하기 전에는 성분이 활성화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안심이다.

58년의 노하우로 가공한 특별한 천연 성분

클라란스는 1954년에 100% 순수 식물성 오일을 선보이며 프랑스의 자연주의 화장품 시장을 이끌어왔다. 식물 성분 추출과 연구는 클라란스 연구소에서 총괄한다. 이번에 출시한 더블세럼은 58년간의 노하우를 집대성한 것으로 총 20가지 식물 성분을 담았다. 주요 성분인 그린바나나와 레몬타임으로 피부의 재생 기능을 활성화한다. 그린바나나는 피부 상처 치유에 효과가 뛰어난데, 클라란스 연구원들은 그린바나나 추출물이 콜라겐을 합성하는 데도 뛰어난 효과가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 특허를 받았다. 레몬타임 추출물 역시 클라란스만의 특허 성분이다. 노화가 진행되면서 합성이 잘 되지 않는 단백질의 일종인 에밀린의 합성에 영향을 미치며 콜라겐의 결합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기에 아보카도 불활화물, 유기농 오트 슈거, 보코아 추출물 등도 함께 피부 재생을 돕는다. 또 강추 추출물을 더해 더블세럼에 함유된 다른 식물 성분을 효과적으로 촉진하도록 고안했다. 이외에도 2중 분자 구조 히알루론산, 우엉 뿌리, 유기농 마시멜로 성분, 카타프레이 성분이 피부 본연의 수분 공급 요소를 촉진해 피부 표면의 수분을 유지해준다. 키위 추출물, 유기농 들깨 오일, 유기농 마카다미아 오일은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 피부에 광채와 윤기를 더해준다. 또 피나스터 소나무 추출물, 유기농 로즈힙 성분, 아르니카 추출물이 산소 공급에 작용해 세포의 에너지대사를 돕는다. 유기농 녹차 추출물, 피스타치오나무 추출물, 유기농 퀴노아 추출물, 옥시덴트론 추출물은 유해 산소를 중화해 피부를 보호하고 피부 장벽을 강화한다.

한국 여성을 배려한 텍스처 개발

클라란스에서는 텍스처에 민감한 한국 여성들을 고려해 이전 제품보다 사용감을 개선하는 데 힘썼다. 에릭 구리(Eric Gooris) 클라란스 그룹 연구소장은 “더블세럼의 텍스처에 각별히 신경 썼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이전 제품은 끈적한 오일 텍스처 제품이었는데 이번 신제품은 사용감이 훨씬 더 좋다”고 설명했다. 다소 끈적이고 유분기가 많았던 것과 달리 발랐을 때 산뜻하고 자연스러운 필름층이 형성되도록 만든 것. 또 이전 더블세럼은 하이드릭(수분)과 리피딕(유분)이 50%씩 나뉘어 2개의 층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이번 제품은 비율에도 변화를 줬다. 하이드릭이 리피딕보다 더 많이 나오도록 개발한 것. 하지만 용기가 비는 속도는 동일하게 고안해 사용하기 편리하고, 특별하지만 편안한 제품 텍스처 덕분에 아침저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일리 세럼으로 추천할 만하다. 30ml 12만원. 문의 080-542-9052 **클 민상원 에디터 배미진**

the Bodyguard

샤워 후 피부가 땅기고 급속도로 건조해지기 시작하는 계절이 다가온다. 하얗게 일어나는 각질이나 피부 트러블에서 해방되고 싶은 남자라면 보디 제품 하나쯤은 구비할 것. 피부결 정돈과 보습력이 뛰어난 보디로션부터 리프्रेस시 효과가 있는 보디 미스트, 몸의 탄력을 높이는 슬리밍 제품까지, 취향대로 선택하시길.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부터 차례대로) **르 라보 로즈 31** 바디로션 프랑스 그라스 지방의 로즈 향이 진하게 묻어나는 보디로션. 관능적이고 여성스러움의 상징인 장미를 남성용 향으로 변형시켰다. 여7에 유향, 삼나무와 앰버의 터치로 따뜻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마무리했다. 비타민 E, 시어버터, 올리브 잎 추출물이 매끈하고 부드러운 피부로 가꿔주며, 파라벤 성분을 배제해 예민한 피부에도 사용하기 좋다. 237ml 9만8천원. 문의 02-517-5218

에르메스 자르맹 수르 트와 퍼퓸드 보디로션 자연의 향기가 느껴지는 프루티 그린 플로럴 향이 알반 보디로션보다 오랜 시간 지속되는 신뜻한 마무리가 특징이다. 보습력이 뛰어난 베지탈 내추럴 성분은 유분과 수분의 균형이 깨지기 쉬운 환절기 피부를 부드럽게 다독여주며, 끈적임이나 번들거림이 없는 신뜻한 텍스처로 덧발라도 부담스럽지 않다. 200ml 7만2천원. 문의 080-990-8989

비오렘 앤드스컬프트 웨이핑 젤 과도하게 자량이 축적되는 복부를 탄탄하게 가꿔주는 보디 세이빙 젤. 브랜드의 혁신적인 바이오 필

링 성분과 카페인, 콜라겐의 시너지 작용으로 지방 연소와 제거를 돕는다. 복부 외에도 허리, 가슴 등 차진 부위나 자량이 뭉친 부위에 아침저녁으로 함하게 풀어 올리듯 마사지하면 빠른 효과를 볼 수 있다. 200ml 4만7천원. 문의 080-022-3332

블리스 리브 핸들러 카페인을 함유한 가벼운 젤 텍스처의 슬리밍 제품. 커피, 차, 콜라나무 열매에서 생성되는 카페인 성분은 8시간 이상 활성화되어 과도한 지방층에 자극을 주고 콜링과 살균, 소독에 효과적인 멘솔 성분이 즉각적으로 조여주는 2중 작용으로 탄력을 되찾아준다. 뱃살과 옆구리 등 군살이 생기기 쉬운 부위를 20~30초간 마사지하면 울퉁불퉁한 라인이 정돈되어 옷맵시가 되살아날 듯. 250ml 6만4천원. 문의 02-514-5167

산타 마리아 노벨라 라베 코르포 워드 7백 년을 이어온 수작업 방식을 고수해 피부 보습과 리프्रेस시 효과가 뛰어난 남성용 보디로션. 매일 사용하면 까칠한 피부결을 보들보들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며, 각질이 나 울긋불긋한 뽀루지 등 피부 트러블을 예방한다.

삼신을 편안하게 하는 마스크 향은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준다. 250ml 12만8천원. 문의 02-546-1612

랩시리즈 에이브 레스큐 바디 스컬핑 젤 피부에 기분 좋은 자극을 주는 쿨링 복합체가 운동 효과를 배가시키는 보디 트리트먼트 젤. 적당량을 털어 근육운동을 한 부위에 발라 마사지를 병행하면 열 발생 포물라가 복부를 탄탄하게 가꿔준다. 콩 단백질, 카페인, 크레이틴 성분이 울퉁불퉁한 피부결을 균일하게 하며, 천연 각질 제거제 역할을 하는 천연 당과 식물성 성분이 보기 싫은 하얀 각질을 없애준다. 200ml 4만9천원. 문의 02-3440-2774

딤티크 새틴 오일 건조한 보디 피부뿐만 아니라 모발에도 사용 가능한 오일. 정제된 우루쿰 오일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고, 농축된 아보카도 오일은 각질이 일어나거나 건조함에 사들리는 피부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한다. 달콤한 오렌지와 앰버, 재스민이 결합된 새틴향은 따로 향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원래 몸에서 나는 듯 자연스러운 향을 선사한다. 끈적이거나 리치

하지 않은 가벼운 오일 텍스처라 평소 오일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들에게도 추천한다. 100ml 8만1천원. 문의 02-514-5167

클라린스 바디 모이스처 스프레이 피부 표면의 장벽을 단단하게 하고 보호막을 형성해 보습 효과가 하루 종일 지속되는 보디 스프레이. 마다가스카르산 카티프레이, 슈가 파인, 바이스 그래스 등의 성분이 자진 피부에 생기를 불어넣고 활력을 되찾아준다. 극심한 건조 피부는 스프레이를 뿌린 후 보디로션을 발라 보습력을 높일 것. 150ml 3만5천원. 문의 02-3014-2916

에이솝 페티그레인 하이드레이팅 바디 젤 목부터 발끝까지 건조한 부위라면 어디에나 사용할 수 있는 리프्रेस시 젤. 위와하젤, 그레이프 프루트, 레몬 껍질 오일 성분이 기운을 북돋아주며, 상쾌한 시트러스 향이 자진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흡수가 빨라 비르고 바로 옷을 입어도 묻어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자극받은 피부를 다독이는 쿨링 효과가 있어 더운 나라로 여행 갈 때 요긴하다. 120ml 4만원. 문의 02-547-5987 에디터 **이예진**



fall in Scent

현대적이고 우아한 영국의 럭셔리를 대변하는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조 말론 런던이 진한 블랙베리 과즙이 흐를 듯 순수하고 상큼한 향이 매력적인 블랙베리 앤 베이 출시한다. 이는 지난 8월 조 말론의 성공적인 한국 론칭 후 가장 처음으로 선보이는 신제품 향수로, 뿌리는 순간 생기 넘치는 베리의 밝고 신선함이 전해지는 풍부한 과즙 향이 깊어가는 가을의 향취를 느끼게 한다.

베리가 전하는 풍부한 향

과일이 익어가고 낙엽이 물드는 가을의 여유로운 어느 날, 영국의 무성한 숲 사이에서 블랙베리를 따던 추억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조 말론 런던의 신제품 '블랙베리 앤 베이'는 레드베리와 블랙베리의 풍부한 과즙 향이 돋보이는 프루티 계열의 향수다. 진한 블랙베리 과즙과 특 쓰는 자몽의 상쾌함, 이제 막 수확한 월계수 잎의 신선한 향, 은은하게 퍼지는 가벼운 꽃잎 향, 시더우드와 베티버가 어우러진 관능적인 우디 베이스 향의 잔잔한 여운까지, 마치 어린 시절의 기억처럼 달콤하고 따뜻한 향취가 느껴진다. 블랙커런트, 블랙커런트 꽃봉오리 그리고 부코나무 에센스를 배합해 풍부한 블랙베리 향을 재현했는데 블랙커런트 꽃봉오리는 과즙이 풍부한 과일 향을, 월계수 잎은 싱그러운 풀 향기를 풍긴다. 여기에 부코나무 에센스가 블랙베리 잎의 싱상한 느낌을 복돋아주어 씹씹한 향을 표현하는 동시에 잘 익은 블랙베리 향이 달콤한 향을 느끼게 한다. 파릇파릇한 그린빛 월계수 잎이 선사하는 자연의 신선함을 담기 위해 갈바님의 천연 성분과 인공 성분을 혼합했다. 또 밝고 명랑한 느낌의 그레이프 프루트 에센스가 월계수 잎의 활기찬 향에 더욱 힘을 실어준다. 순수함이 느껴지는 부드러운 블랙베리 앤 베이에 조 말론 런던의 대표 아이템인 라임 바질 앤 만다린을 레이어링하면 상큼한 느낌을, 프루티 계열의 닥터린 블로섬 앤 허니를 함께 뿌리면 달콤한 느낌을 더욱 강조할 수 있다. 두 가지 사이즈의 코롱과 함께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보디 크림과 보디 & 핸드 워시, 그리고 나만의 공간에 생기와 따뜻함을 더해줄 홈 캔들들 구성되어 있다. 블랙베리 앤 베이는 10월 19일부터 신세계백화점 본점과 강남점에서 만날 수 있다.

뷰티크 향수 & 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조 말론 런던

전 세계적으로 많은 애호가를 확보한 조 말론 런던은 향수, 스킨케어, 홈 프레그런스으로 구성된 라이프스타일 브랜드다. 국내 론칭 전부터 까다로운 심미안의 소유자인 셀러브리티나 패션 피플의 시크릿 아이템으로 알려지면서 매장 오픈 첫날 특정 제품이 품절될 만큼 브랜드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다. 남녀 누구에게나 사랑받을 고급스러운 향, 블랙 리본의 럭셔리한 기프트 패키지는 소중한 이를 위한 특별한 선물로, 혹은 내 자신을 위한 감각적인 아이템으로 충분히 매력적이다. 특히 우아한 품격이 느껴지는 조 말론 매장에서는 스타일리스트가 럭셔리한 제품을 사용해 개개인이 원하는 향을 준비해주는 것은 물론 개인의 이미지와 기분 상태, 특별한 룩에 따른 향을 컨설팅해주는 서비스도 마련되어 있다. 또 다른 브랜드와는 차별화된 향수 레이어링을 제안하는데, 이를 통해 향이 오래 지속되게 하며 향을 어떻게 믹스하느냐에 따라 자신만의 시그너처 향을 만들 수 있다. 문의 02-3440-2750 에디터 권유진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블랙베리 앤 베이 바디&핸드워시
250ml 7만4천원대, 블랙베리 앤 베이
바디 크림 175ml 11만원대, 블랙베리
앤 베이 코롱 30ml, 100ml 각
8만원대, 16만원대 모두 조 말론 런던

SPECIAL EVENT COUPON

<스타일 조선일보>와 조 말론 런던이 함께하는 '블랙베리 앤 베이' 출시 기념 이벤트

본 쿠폰을 지참하고 조 말론 런던 매장을 방문해주시는 고객님의 조 말론 런던의 베스트 향수 1.5ml 샘플과 10월 말 출시 예정인 '블랙베리 앤 베이'를 남들보다 먼저 체험할 수 있는 시향 엽서를 함께 증정합니다.

❖ 기간 10월 5일~10월 6일 ❖ 증정 장소 신세계 백화점 강남점 2층 조 말론 런던 매장(02-3479-1555)

※ 향수 1.5ml 샘플은 선착순으로 증정합니다. ※ 1인 1회 한정 수량으로, 중복 증정하지 않습니다. ※ 선착순 증정으로 조기 소진될 수 있습니다.



Field of Korean Chair

의자는 디자인의 기본이며 공간의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매력적인 오브제로 손꼽힌다. 그러기에 해외 거장 디자이너의 의자를 수집하는 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가구 디자이너들의 의자 역시 매력적이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 아쉽다. 지면으로나마 만나보는 우리나라 디자이너들의 감각적이고 크리에이티브한 의자.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다

의자는 왜 매력적인가? 세계의 가구 컬렉터는 의자를 수집하는 것으로 컬렉션을 완성하고, 가구 디자이너는 완벽한 의자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너무나 흔하고 당연한 단어, 의자. 얼마 전 우리나라를 찾은 일본의 디자인 학자, 오다 노리쓰구(Oda Noritsugu)는 의자는 '몸을 지탱해주는 도구이자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의자는 인간이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하는 가구이자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는 존재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의자는 가구 중에서 디자인하기 가장 어렵다. 튼튼해야 하고 인락해야 하며, 아름다움을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량생산할 수 있는 경제성마저 갖추어야 하니, 이렇게 까다로운 것이 의자 디자인의 매력 아닐까 싶다. 오다 노리쓰구는 아름다운 의자는 그 자체만으로 공간의 분위기를 완결시킬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의 정준모 총감독은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의자를 통해 얻은 평등의 개념이 낯선 의자를 갖고 싶어 하는 욕망으로 이어지면서 특정한 모양으로 발전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오늘날 일상적이면서 심미적 요소가 가미된 의자는 아마도 수공예 운동을 시작한 윌리엄 모리스가 1870년대 자신의 별장을 위해 만든 의자에서 비롯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와 함께 아르누보 운동의 핵심이었던 오스트리아의 건축가 요제프 호프만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다. 이들은 단순한 상징으로서의 의자뿐 아니라 일상의 가구와 같이 폭넓게 의자를 다루었다." 이후 세계 각국에서 아티스트들이 다양하고 독창적인 의자를 제작하기 시작했다. 덴마크의 핀 울, 한스 베그너, 아르네 야콥센, 미국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구스타브 스티클리, 찰스 & 레이 임스, 프랑스의 장 푸르베, 필립 스타크 등 각국에서 스타 디자이너들이 탄생했고, 모두가 그들이 디자인한 의자를 갖고 싶어 했다. 스타 디자이너의 의자를 갖는다는 것은 사회적 포지션의 상징적 방편이자 예술적 심미안의 척도가 되었다. 그 때문에 마치 미술 작품처럼 디자이너의 의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왜 우리나라에는 세계적으로 알려진 가구 디자이너가 없는지 한탄하는 이들이 생겼다. 감히 그들에게 말하노라, 우리나라에도 스타 디자이너가 있고 이미 세계 컬렉터들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아트 페니처의 거장, 최병훈 작가의 잔상 시리즈

우리나라 의자 디자인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작가로 지목할 수 있는 이는 바로 최병훈이다. 그의 의자 2점이 스위스 비트라 디자인미술관의 컬렉션으로 선정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다. 비트라 디자인미술관은 20세기 산업디자인의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 이곳에 작품이 소장된 작가는 아직까지 최병훈 교수(홍익대학교) 단 한 명뿐이다.



'afterimage 태초의 잔상 05-222'와 'afterimage 07-244'가 소장되어 있다. 자연에서 떠올던 유년 시절의 기억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한 그의 작품은 우리나라의 산수를 빼닮았으며 흠잡을 데 없이 수려하다. 디자인에도 일필휘지(一筆揮之)가 있다면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다. 가구 디자이너면서 이렇게 예술적인 의자를 만들 수 있는 작가는 우리나라에 몇 명뿐이며, 바로 그 선두에 최병훈 교수가 서 있다. 그는 실용적 존재 이상의 예술적 가구를 지칭하는 우리나라 아트 페니처의 표본이기도 하다.

최병훈 교수는 디자인 마이애미/바젤 2012에 매끈한 나무에 작은 돌로 버팀대를 세운 'afterimage 08-304' 등을 출품했다. 디자인 마이애미/바젤은 예술적 가치가 있는 디자인을 추구하며, 가장 주목받고 있는 국제 디자인 페어로 1년에 두 번 마이애미와 바젤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전 세계의 컬렉터뿐 아니라 재벌과 스타들이 자가용 비행기를 타고 참석하는 것으로 명성이 높다. 최병훈 작가의 작품과 함께 중견 도예가 이현정과 신에 디자이너 배세화의 작품도 출품되었다. 배세화 작가는 호두나무를 얇게 썬 의자로 만드는 특유의 시그니처 작품으로 유명하다. 여체와 같은 부드러운 곡선이 한국적이면서도 모던해 국내외에서 인기가 높다. 도예가 이현정은 몇 해 전 디자인 마이애미/바젤에서 할리우드 배우 브래드 피트가 구입하면서 세라믹 콘크리트 테이블 겸 벤치로 더욱 유명해졌다. 도자기와 콘크리트로 구성된 벤치는 동양적 비움의 미학을 보여준다는 호평을 받았다(지금 그의 의자는 브래드 피트의 집 어디에 놓여 있을까?). 도자기 그릇, 조형물뿐 아니라 가구에서도 놀라운 디자인 감각을 선보이고 있는 그는 올해도 콘크리트와 도자, 철근을 결합한 테이블과 의자 등을 출품했다.

두바이 아트 페어의 전설

바로 얼마 전 열린 두바이 아트 페어에서는 미술가 이재효의 의자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에게 고가에 판매되면서 화제가 되었다. 여러 개의 나무를 동글게 붙여서 아름다운 의자로 탄생시킨 그의 감수성에 찬사를 보낸다. 올해 성곡미술관에서 개인전을 연 이재효 작가는 사실 가구 디자이너라기보다는 미술가이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미술 작품인 동시에 앉을 수도 있는 진정한 아트 페니처인 셈이다. W 호텔 로비에 있는 두충나무로 만든 작품이 바로 이재효 작가의 작품이다. 개울가의 돌, 벌목장의 나무토막, 떡갈나무 낙엽 등 자연 그 자체를 작품 소재로 삼는 그의 다음 작품이 기대된다. 두바이 아트 페어에서 이정섭 목수의 작품 역시 호평을 받았다. 크로프트의 구병준 실장은 이정섭 목수의 가구가 조선 목가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이라 더욱 매혹적이라고 말한다. 또 이정섭은 서양화를 전공했으나 집도 만들고 가구를 만드는 등 시야가 넓은 작가가기에 의자 디자인에 접근하는 방법이



7



가 담긴 것이다. 사람이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사람의 머리, 의자 좌편의 네 귀퉁이, 이렇게 5개의 꼭짓점이 하나의 별 모양으로 형상화된다. 4명의 디자이너로 이루어진 아트 퍼니처 그룹 바오도 주목할 만하다. 연회장 의자에서 영감을 받아 '커스텀(Costume)' 시리즈를 발표한 박종호 디자이너와 강원도 인제의 자작나무 숲을 보고 떠올린 '자작나무 포레스트 암 체어(Birch Forest ACS)'의 박준범 작가는 스틸 소재를 즐겨 사용한다. 곤충과 같이 유기적 디자인으로 이루어진 '플랩(Flap)' 시리즈로 유명한 위형우 작가의 의자도 흥미롭다.

여성 디자이너의 활약

여성 가구 디자이너들의 의자는 섬세하고 도전적이다. 디자이너 방은숙의 초콜릿 체어에 앉아본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안락함에 놀라게 된다. 의자의 기본 프레임은 각재를 이용해 제작하되 흠을 일정하게 구고, 의자에 앉았을 때 쿠션감을 느끼는 부분은 모두 각재의 흠과 같은 규격의 조각으로 만들고 각 조각을 고무줄로 가로세로 방향으로 엮어서 고정해, 의자를 보았을 때는 플랫폼 나무 의자처럼 보이지만, 의자에 앉으면 각자의 자세와 체형에 맞추어 조각들이 늘어나며 몸을 감싸주게 되는 형식. 김정희 작가의 '픽셀 체어(Pixel Chair)'는 삶의 일부분이 모여 인생을 만들 듯 여러 개의 픽셀이 모여 하나의 덩어리를 이룬다. 이 작업에서는 시각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메이플, 오크, 호두 등 색이 다른 나무를 소재로 제작했다. '필 더 퍼스펙티브 1(Feel the Perspective1)'의 김하얀 작가는 가구와 공간을 동시에 디자인했다. 1점 투시 원근법을 3차원의 가구에 표현해 이색적인 공간감을 제시한다. 미술가 김보연의 투명한 의자 '더 레이저(The Laser)'와 자작나무 합판으로 의자를 왜곡시킨 '프레스 체어(Press Chair)'는 젊은 작가의 예술적 시도가 돋보이는 작품.

무서운 신예, 김기현과 이광호의 의자

재기 발랄한 젊은 디자이너 김기현과 이광호는 해외에서 먼저 주목받아 한국에 알려진 경우이다. 이광호 작가의 옴세션 시리즈는 2009 디자인 마이애미/바젤에서 선보인 패션 브랜드 펜디(Fendi)와의 협업에서 영감을 얻어 탄생했다.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 청계천을 걷다가 펜디를 상징하는 옐로 컬러 고무 호스를 발견하고, 이를 활용해 창작되었다. 정원용 호스로 뜨개질을 하듯이 만든 의자는 다채로운 컬러와 사랑스러운 디자인으로 세계적인 마니아를 만들었다. 누가 알았더라, 정원용 호스가 이렇게 아름답다는 것을. 김기현 디자이너는 1.3 체어로 디자인계의 오스카상이라고 불리는 '2012 런던 디자인 뮤지엄 가구 부문 올해의 디자이너상'과 100% 디자인의 '블루 프린트 상'을 수상했다. 그에게 영감을 안겨준 '1.3 체어'는 무게가 1.28kg이라는 것에서 이름 붙여진 작품이다. 1.3 체어는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의자로 이탈리아 건축가 지오포타가 만든 1.7kg의 슈퍼레게라보다 가벼워서 한 손으로도 의자를 번쩍 들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영국군이 사용한 폭격기 DH.98 모스키토를 보고 영감을 받아 발사나무 합판으로 만든 이 의자는 대량생산에 들어갈 준비에 돌입했다. 이 가볍고 아름다운 의자를 해외에서 기념품으로 사서 입국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우리나라의 주목할 만한 젊은 디자이너들의 의자는 주로 원목을 사용하며 실용적인 면모에 중점을 둔다는 것이 특징이다. 김자형 작가의 '브랜치(Branch)' 시리즈는 의자에 나뭇가지를 그대로 접목한 디자인이 재미있으며, 금택해 작가의 '협곡 의자(Gorge Chair)'와 '기와 의자(TKF Chair)'는 집성목을 사용해 의자 이름 그대로 협곡과 기와를 묘사했다. 실용주의를 추구하는 최중호 작가는 가방을 멜 때처럼 편안한 바사크(Bachag)와 인체 공학을 반영한 '미려(Mi Ryeo)'를 선보였다. 다이얼로그메스드의 헤드 디자이너 조형석 작가는 호두나무와 물푸레나무로 만든 '모데나티크 체어&테이블(Moderatique Chair&Table)'로 알려졌다. 아크릴, 스테인리스 스틸, 물푸레나무로 만든 정재범 작가의 'R60'과 '모노 체어(Mono Chair)', 신지훈 작가의 벤딩한 자작나무 의자인 'W1 라운지 체어'와 투스 체어(Tooth Chair)도 눈을 즐겁게 한다. "의자를 성공적으로 디자인하는 것은 건물을 디자인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모데니즘 건축의 아버지로 불리는 미스 반데어로에가 말했듯 의자는 작은 건축물과 같이 집합된 존재이다. 미래에는 의자 디자인의 전설로 칭송받게 될 우리나라 가구 디자이너의 작품을 미리 눈여겨보시라. 나중에는 가격이 너무 올라서 구입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니. **89**

글 이소영(사진 미술에 중독되다), (서울 그라피컬 디자인)의 저자

8

1 내촌목공소 이정섭 목수의 의자와 테이블 세트. 건축까지 하는 작가에게 의자에 대한 내용이 더욱 깊다는 평이다. 2 두바이 아트 페어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자에게 판매된, 미술가이자 디자이너 이재호 작가의 의자. 3 대리석과 천연석으로 만든 최병훈 작가의 의자, '애프터 이미지(after image) 09-330'. 4 별 모양을 형상화한 이삼웅 작가의 '스타 체어'. 5 김정희 작가의 '픽셀 체어'는 단풍나무, 호두나무 등 컬러가 다른 나무들이 픽셀을 이루어 완성된 작품이다. 6 의자와 테이블로 이루어진 김하얀 작가의 '필 더 퍼스펙티브'는 1점 투시 원근법을 3차원의 가구에 형상화한 것이라 착시 효과를 일으킨다. 7 이광호 작가의 '옴세션' 시리즈. 정원용 호스로 뜨개질을 하듯이 만든 의자로 해외에서 먼저 유명해졌다. 8 아트 퍼니처 그룹 '바오' 박준범 작가의 '자작나무 숲 의자'. 강원도 인제의 자작나무 숲에서 영감을 받았다. 9 무게 1.28kg의 세계에서 가장 가벼운 의자. 2012 런던 디자인 뮤지엄 가구 부문에서 올해의 디자이너상을 수상한 김기현 작가의 작품이다. 10 투명 아크릴 속에 빛을 담은 김보연 작가의 의자, '레이저'. 11 실제 나뭇가지를 디자인 요소로 삼은 김자형 작가의 의자, '브랜치'. 12 의자에 앉는 사람에 따라 의자가 늘어나는 방은숙 작가의 '초콜릿 체어'. 13, 14 강화섬유 유리로 만든 신지훈 작가의 투스 체어와 손목을 담은 레인디어 체어. 15 아트 퍼니처 그룹 바오의 리더 위형우 작가의 의자, '플랩'.



10



11



9



12



14

남다르다고 평했다. 이정섭 목수는 주문을 받고서야 수종과 규격을 결정하고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가구를 받기까지 기본적으로 두 달의 시간이 소요된다. 두 작가의 작품은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자연 친화적이기에 두바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릴 수 있었다. 예술적 오브제를 추구하는 젊은 디자이너들의 의자도 눈에 띈다. 미술가 이삼웅의 스타 체어는 별 모양 부분을 서로 엮어서 고정하는 방법으로 그 형태를 유지한다. 이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 사람과 만물의 관계 속에서 연관되고 그 속에서 서로의 존재감이 부각될 수 있다는 의미

13



15



Sezz Saint-Tropez

프랑스 생 트로페(Saint-Tropez)는 프랑스인들에게 영원한 비캉스의 낙원으로 사랑받는 곳이다. 그렇기에 이곳엔 온갖 사치스러운 리조트나 트렌디한 패션 호텔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다. 하지만 새로운 모험과 경험을 즐기고자 하는 모던 노매드족에게 그런 곳들은 그저 올드 패션에 지나지 않을 뿐이다. 파리와 생 트로페에 호텔을 둔 세즈 호텔 체인은 이러한 점에 착안해 세즈 생 트로페 호텔을 새 단장했다. 디자이너 크리스토프 필레가 디자인한 기구와 크리스토프 풍소가 조경한 정원, 그리고 피에르 가니에르 레스토랑 체인의 맛있는 요리가 생 트로페의 천국과 같은 날씨와 함께 손님들을 기다리고 있다.



Sezz Hotel Saint-Tropez
 151, Route des Salins - 83990 Saint-Tropez
 tel +33 (0)4 94 55 31 55 fax +33 (0)4 94 55 31 51
 sainttropez@hotelsezz.com www.hotelsezz.com
 www.hotelsezz-sainttropez.com



8 생 트로페는 복잡하고도 장엄한 역사를 지닌 곳이다. 켈트족과 그리스인들이 다녀간 후 로마인에게 점령당하고 이후 아랍인과 스페인인, 심지어는 1615년 로마로 향하던 일본인의 배가 험한 날씨 때문에 불시착한 흔적까지 있는, 그야말로 파란만장한 도시이다. 그래서인지 생 트로페는 이국적이고 다문화적인 면이 다분하며 프랑스 상류층의 특색이 고루 섞여 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환경은 빼놓을 수 없는 이곳의 보물이다. 이러한 생 트로페에는 세즈 호텔 체인인 세즈 생 트로페 호텔이 있다. 세즈 호텔은 2005년 샤에 칼레지앙(Shahé Kalaidjian)이 파리에 문을 연 세즈 호텔이다. 프랑스의 신진 디자이너 크리스토프 필레가 디자인한 이곳은 내추럴하기보다는 심플한 디자인에 충실한 모던한 호텔이었다. 이후 세즈 호텔은 디자인 호텔이라는 수식어를 달고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왔다. 샤에 칼레지앙은 자신이 젊은 시절을 보낸 프랑스 남부, 특히 생 트로페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파리에 디자인 호텔 사업에 성공하자 두 번째 호텔을 생 트로페에 세우게 되었는데, 디자인 콘셉트가 조금 색달랐다. 세즈 호텔이 주요 컬러가 회색 톤인 파리에 맞게 무채색의 모던한 스타일이라면 생 트로페의 분위기는 원색과 발랄함, 그리고 지중해의 깊고 푸른 바다의 환상적인 조합이 눈에 띈다. 거기에 진정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모던하고 아름다운 크리스토프 필레의 가구가 어우러져 새로운 스타일을 창출해낸 것이다. 생 트로페는 아름답고 호사스러운 호텔이 즐비한 곳이다. 그렇기에 호텔 주인장 샤에 칼레지앙은 이곳을 색다른 안식처로 꾸밀 필요가 있었다.

샤에 칼레지앙은 생 트로페 세즈 호텔을 이국적인 에스프리로 디자인하기로 결심했다. 아시아 여행에서 그가 만나고 느낀 것들과 더불어 그 어디에도 없을 법한 평온함을 갖춘 곳. 아름다운 식물들이 자라나는 공간과 그 어느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서비스, 강렬한 햇살과 신선한 공기가 가득 넘치는 행복한 낙원. 그리고 그와 동시에 최상의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디자인. 아시아의 고요함과 뉴욕 햄프턴의 세련된 우아함을 한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이 탄생한 것이다. 호텔은 총 37개의 룸, 35개의 일반 객실과 2개의 스위트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일반 객실이 35개라고는 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곳은 하나의 방이 아닌 작은 집으로 구성되어 있다. 2개의 스위트는 야외 풀장이 딸린 거대한 빌라이다. 이곳은 샤에 칼레지앙의 색다른 아이디어와 디자이너 크리스토프 필레의 모던한 가구, 인테리어 디자인, 조경가 크리스토프 풍소가 야

생 식물로 꾸민 아름다운 랜드스케이프가 모여 삼박자가 맞아떨어진 명소이다. 인테리어와 가구를 디자인한 크리스토프 필레는 최근 떠오른 프랑스의 대표 신진 디자이너이다. 절제된 라인과 소재, 클래식함과 모던함의 장점만을 뽑아 디자인한 것 같은 가구들을 세즈 호텔에서 쉽게 만날 수 있다. 그는 자신이 디자인한 의자들을 보며 이렇게 말한다. “저의 세대는 임스의 가구들에 둘러싸여 어린 시절을 보냈지요. 임스 가구들은 그 당시 가구라는 것이 어떻게 모던하게 디자인될 수 있는지 매우 명쾌하게 보여줬는데 그 가구들은 지금도 최고의 스타일로 손꼽히지요. 유행을 타지 않는 디자인, 시간이 지나도 언제나 젊은 감성을 잃지 않는 가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생 트로페에는 매우 유명한 호텔 체인과 나름대로의 독창성을 자랑하는 패션 부티크 호텔이 즐비하지만 저는 세즈 생 트로페를 디자인할 때 그들과는 반대되는 관점에서 보고자 했습니다. 세계 가장 중요한 디자인적 요소는 생 트로페에 비치는 아름다운 태양 빛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생 트로페 호텔의 디자인 콘셉트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호텔에 있지만 해변에 누워 있는 듯한 느낌, 바로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최대한 디자인에 융화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태양, 물, 그림자, 나무. 시간이 한 템포 늦게 가는 듯한 착각. 그것들은 마치 새로운 세노그래피를 탄생 시키거나 향수를 새롭게 블렌딩하는 작업과도 흡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특히 디자인에 중점을 둔 스틸 소재 의자는 심플하지만 일단 앉으면 낮잠을 잘 수 있을 만큼 안락합니다. 보는 것과 느끼는 것의 차이를 두어 사람들에게 또 한 번의 즐거움을 선사했지요. 저는 디자이너를 글 쓰는 작가나 아티스트, 영화감독 등 이야기를 해주는 직업의 사람들과도 같은 맥락으로 보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한 가구가 어떤 감정적인 가치에 접근하느냐에 따라 그것을 구입할 지 말지 결정합니다. 마치 옛날 사진을 시간이 오래 지난 지금까지 계속 보관하는 느낌이었을까요? 모든 선택은 인생의 순간의 결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스토리 텔링과도 같죠. 따라서 가구를 살 때 소비자는 자신의 스토리를 완성해줍니다. 저는 호텔을 찾는 사람들에게도 이처럼 어떤 스토리를 선사할지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세즈 체어들이 탄생한 것이죠.” 이런 디자인 철학이 녹아 있는 세즈 생 트로페 호텔은 투숙객이 최상의 휴식과 아름다움을 만끽하도록 해주는 데 최선을 다한다. 진정한 쉼이 그리워진다면 이보다 더 탁월한 선택은 없을 것이다. **글** 자은경 사진 Anthony Lanneretonne, Manuel Zublena, Patrick Cuissard



11 올리브나무가 자라는 호텔 레스토랑의 테라스. 12 심플하지만 편안한 크리스토프 필레의 가구들이 놓인 호텔 룸. 3 밤이 오면 호텔 정원에 있는 수영 풀 주변의 아늑한 조명이 곳곳을 밝힌다. 4 세즈 호텔의 실내 수영 풀 5 스위트는 전용 수영 풀을 갖추고 있다. 6 레스토랑은 파에르 가.에르의 메뉴로 운영된다. 7 화이트 컬러의 느낌을 최대한 이용해 최상의 생 트로페의 날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호텔 룸비. 8 욕실의 큰 창문을 통해 생 트로페의 신선한 바람이 들어온다. 9 호텔보다는 여름 비캅스 하우스를 연상시키는 룸. 10 편안함과 심플함에 위트를 더한 크리스토프 필레의 가구 디자인. 11, 12 파에르 가.에르는 생 트로페의 풍미를 한껏 느낄 수 있는 로컬 푸드로 메뉴를 구성했다.

SHOWROOM

FASHION



클롬보 미샤



아노나



일비중매



코브누아

클롬보 2012 F/W 타루가 클롬보에서 남성성을 위한 백팩 타루가(Taruga)를 새롭게 선보인다. 백 가죽과 스가죽의 독특한 매치가 눈에 띄는 스커터 형태의 백팩으로, 여성 기복에서만 볼 수 있던 아가죽 패치워크를 달개로 사용해 클래식하면서도 트렌디한 이미지를 강조했다. 블랙, 브라운 컬러부터 블루, 올리브 그린, 베이지까지 다양한 컬러 팔레트로 구성했다. 문의 070-7130-9200

미샤 트윈드 수트 미샤에서 재킷과 스커트를 구성한 트윈드 수트를 선보인다. 그린과 네이비 컬러의 원사를 믹스해 고급스러운 느낌이 묻어나며, 영성이 물든 하프 길이의 재킷은 다양한 하의에 매치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격식 있는 모임에서는 같은 소재의 트윈드 스커트를 세트로 착용하고, 평상시에는 가죽 스커트나 데님 등과 함께 세련된 오피스 룩을 연출해도 좋다. 문의 02-520-9476

파토가스 2012 F/W 그라운드 시리즈 파토가스가 2012 F/W 컬렉션의 '그라운드' 시리즈를 선보인다. 낡은 듯 멋스러운 반티지 콘셉트의 웨지힐 스타일로 완성했으며, 유럽에서 전 생산과정을 거친 우수한 식물성 가죽 소재를 사용해 부드럽고 편안한 착용감을 선사한다. 카키와 블랙 2가지 컬러로 구성했으며 갤러리아 WEST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543-2104

필로에 엘시 포크 필로에에서 2012 F/W 시즌을 맞아 엘시 포크를 선보인다. 지난 시즌 선보인 엘시 백의 상징적인 회전식 메탈 버클과 지퍼 디테일, 솔더 스트랩은 그대로 유지하고 전면 덮개 부분의 스티치와 옆면의 골드 스티치 장식을 더해 캐주얼하면서도 세련된 메탈릭 색 스타일을 완성했다. 부드러운 스가죽과 양가죽으로 선보이며, 미디엄과 라지 2가지 사이즈로 구성했다. 문의 02-543-1737

펜디 투 주르 백 펜디에서 2012 F/W를 대표하는 '투 주르(2 Jours)' 백을 소개한다. 프랑스로 인해 나, '향상의 의미가 있는 이백은 클래식한 형태에 펜디가 추구하는 유물리즘의 가치를 그대로 반영했다. 미디엄 사이즈에는 탈착 가능한 스트랩을 더했고, 라지 사이즈에는 백 옆면을 펼치고 닫을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문의 02-2056-9022

모그 시크 모던 재킷 모그에서 '시크 모던 재킷'을 선보인다. 영감을 얻은 길이의 울 소재 재킷으로, 다양한 연출할 수 있는 라벨 디테일과 군더더기 없는 날렵한 테일러링이 특징이다. 패들링 디테일의 펜슬 스커트와 매치하면 트렌디한 룩을 완성할 수 있다. 문의 02-517-8961

구찌 아티잔 코너 구찌가 서울 플래그십 스토어에서 이탈리아 장인들의 공방, '아티잔 코너(Artisan Corner)'를 재현했다. 피렌체의 카펠리나 가죽 공장 현장을 그대로 가져와 구찌의 대표 핸드백과 지갑을 제작하는 과정을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현장에서 완성한 제품 인공에는 '아티잔 코너 2012'가 적힌 라벨을 부착했으며, 즉석에서 영문 이나설을 새겨주는 스탬핑 서비스를 제공해 특별한 경험을 선사했다. 재킷 백의 과거와 현재를 보여주는 재킷 스페셜 디스플레이도 전시했다. 문의 02-3438-7213

아노나 화이트 캐시미어 니트 코트 아노나에서 캐시미어 니트 코트를 선보인다. 몸의 곡선을 따라 실루엣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며, 화이트 캐시미어 니트와 앙겔을 믹스 매치해 고급스럽게 연출할 수 있다. 곡률감 있는 칼과 질은 브라운 컬러의 모피는 중앙에서 시작하는 하위한 퍼시안 양털을 사용해 광택과 촉감이 우수하다. 한데백화점 입구정 본점과 무역센터점에서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38-6070

일비중매 신사동 기모수길 매장 오픈 이탈리아 백 & 액세서리 브랜드 일비중매가 신사동 기모수길에 국내 최초의 단독 숍을 오픈했다. 기모수길 없는 가죽 그대로의 상태를 원재료로 하는 카우하이드(cowhide)와 캔버스 두 종류의 원단만을 사용하며, 이탈리아 투스카니 장인들의 손을 거쳐 완성도 높은 제품을 선보인다. 국내에서는 가방, 지갑, 다이어리, 노트 등 다양한 상품을 만날 수 있다. 문의 02-3438-9145

랑방 론칭 10주년 해피 액세서리 캡슐 컬렉션 랑방에서 브랜드 론칭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해피 액세서리' 캡슐 컬렉션을 출시한다.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엘라 알바르즈가 기획한 10가지 주제 아래 백, 주얼리, 슈즈 등을 재구성한 특별 컬렉션이다. 10가지 스토리 중 하나인 '다이아몬드 하트 라인은 금색과 메탈 가죽에 레드 시퀀을 수놓은 히트 모티프 장식'으로 하우스의 쿼터트릭

인 면모와 사랑스러운 감성을 느낄 수 있다. 문의 02-2118-6133

랑방 컬렉션 하이봄 스니커즈 랑방 컬렉션에서 2012 F/W 시즌을 맞아 하이봄 스니커즈를 선보인다. 시이드 인공에 볼드한 금속 지퍼가 달려 있어 신고 벗기 편리하며, 가죽과 스웨이드의 매치가 세련된 느낌을 준다. 신발 앞코에는 파이톤 패턴으로 포인트를 더했다. 문의 02-3416-2440

코브누아 한남동 오픈 멀티 액세서리 콘셉트 스토어 '코브누아(Courbe Noir)'가 한남동에 오픈했다. 트렌드세터의 열렬한 지지를 받는 브랜드인 이탈리아, 델보, 레포시 등을 비롯해 저름 드레퓌스, 톰 톰 등 컨템퍼러리 브랜드, 세계적인 멀티미디어로 볼 수 있는 스페셜 에디션까지 다양하게 구성했다. 오픈을 기념해 1백80년 전통의 벨기에 럭셔리 브랜드 델보의 스페셜 에디션을 선보이는 <브라질의 무드(Humeurs de Brillant)> 전시를 개최한다. 문의 02-3785-2012

썬스나이트 라이트 스피어 캐리어 썬스나이트에서 신제품 '라이트 스피어 캐리어'를 출시한다. 가방 무게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쪽과 아래쪽만 단단한 셸(shell)로 고정하고, 외부 충격을 90%까지 흡수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신소재를 사용했다. 가장 작은 가방 사이즈는 일반 노트북 무게보다 가벼울 정도다. 문의 02-2007-2972

V73 2012 F/W 컬렉션 V73에서 2012 F/W 컬렉션을 선보인다. 여행, 클래식, 시크 등 3가지 테마 아래 디자이너에게 영감을 준 4개의 도시 미국, 일본, 이탈리아, 영국 국기를 백 앞면에 프린트하거나 티조와 비단백 프린트 제품에 여우털 액세서리 침으로 독특한 감성을 표현했다. 문의 02-2118-6077

닥스 레드 라벨 모던 클래식 재킷 닥스 레드 라벨에서 2012 F/W 시즌을 맞아 모던 클래식 재킷을 선보인다. 둥근 어깨 라인으로 여성스러움을 강조했다. 체프 프린트를 인감에 적용해 고급스럽게 완성했다. 문의 02-517-8961



닥스 레드 라벨

BEAUTY

조 알론 런던 블랙베리 앤 베이 조 알론 런던에서 신제품 '블랙베리 앤 베이'를 선보인다. 진한 블랙베리 과즙과 톡 톡 자몽, 신선한 월계수 잎에 시더우드, 베틀버를 더해 부드럽고 따스한 여운이 남는 순수한 향이다. 상큼한 향을 선호한다면 '라임 비즈 앤 민달란'을, 달콤한 느낌을 더하고 싶다면 '넵타린 블로섬 앤 허니를 레이'가 어울린다. 문의 02-3440-2750

몽블랑 레전드 뿌리 팜프 몽블랑에서 여성을 위한 향수 '레전드 뿌리 팜프'를 출시한다. 세련되고 우아하며 성공한 커리어 우연을 콘셉트로 한 이번 향수는 몽블랑 주얼리 컬렉션인 4810 링 컬렉션에서 영감을 받아 완성했다. 페어, 비올리, 비가리의 상쾌한 톨 노트로 시작해 오렌지 블라섬, 릴리 오브 밸리, 제스민 향으로 이어지다가 머스크 파우더와 바닐라, 불린드 우드로 마무리되는 선유향한 향수다. 문의 080-800-8809

클라란스 더블세럼 클라란스에서 27년간의 안티에이징 연구를 통해 개발한 '더블세럼'을 업그레이드 출시한다. 새로워진 더블세럼은 207개의 식물 추출물과 과학적인 테크놀로지가 만나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한다.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와 동일한 비율로 0.1%의 텍스처가 2개의 용기로 분리되어 완벽한 기능을 하도록 하는 '하이드라리피드(hydric-lipidic)' 기술을 적용해, 사용 후 4시간 후에 수분이 75%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문의 02-3014-2916

샤넬 메이크업 스튜디오 한정 컬렉션 샤넬의 메이크업 스튜디오 한정 컬렉션, '골드스탁 에디션'이 샤넬이 올해 6회를 맞았다. 2012 F/W 컬렉션의 런웨이에서 영감을 얻은 메이크업 디렉터 피터 필립스가 일상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메이크업 제품으로 구성했다. 눈과 양 볼에 은은한 광채를 선사하는 새도와 매혹적인 입술을 만드는 립스틱, 네일 래커로 이루어져 있다. 문의 080-332-2700

설화수 연성 핸드크림 설화수에서 '연성 핸드크림'을 선보인다. 브랜드에서 선보이는 첫 번째 핸드크림으로,

해송자유, 연자유, 동백유, 매실유, 행안유로 구성된 5가지 천연 유래 한방 오일이 메마른 손에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한다. 주름 개선 성분은 손등의 잔주름을 완화해 피부 탄력을 부드럽고 환하게 만들어, 은은한 '연성향'은 아로마 테라피 효과로 심신을 편안하게 한다. 문의 080-023-5454

이오레퍼시픽 타임 레스폰스 인텐티브 스킨 리뉴얼 앰플 이오레퍼시픽에서 4주 안티에이징 프로그램 타임 레스폰스 인텐티브 스킨 리뉴얼 앰플을 출시한다. 브랜드만의 독점 안정화 기술을 적용한 EGCG 파우더와 에일레션을 섞어 사용하는 제품으로, 녹차 사포닌이 피부 속 콜라겐 밀도를 증가시켜 강력한 안티에이징 효과를 선사한다. EGCG는 비타민 E보다 2배 이상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어 노화된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킨다. 타임 레스폰스 컬렉션의 전 제품을 함께 사용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문의 080-023-5454

아트ISTRY 글로벌 페이스, 테레사 팔머 아트ISTRY가 2012년 새로운 모델로 테레사 팔머(Teresa Palmer)를 선정했다. 현재 할리우드에서 니콜 키드먼, 나옴이 왓슨 등 톱스타의 계보를 이을 것으로 주목받는 차세대 스타로, 국내에서는 영화 <미생의 제자>의 여



조일론 몽블랑

주인공이자 크리스틴 스투어트의 딸은물로 알려져 있다. 아트ISTRY의 글로벌 뷰티 부사장 마드 펜싱은 "모래 여성들이 지닌 생기 발랄한 이미지는 물론, 발전 가능성을 인정받은 에베루인 만큼 대중에게 신선한 매력과 호기심을 선사할 훌륭한 모델"이라며, "그녀가 출연 작품을 통해 보여준 자신감과 광채 그리고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은 아트ISTRY 브랜드 철학과도 일치한다"며 선정 이유를 밝혔다. www.artistry.co.kr

미크 제이콥스 도트 오데퍼뎀 론칭 행사 미크 제이콥스가 신사동 가로수길 예화랑 갤러리에서 새로운 여성 향수 '도트 오데퍼뎀'의 론칭 행사를 가졌다. 데이지와 플라에 이은 향수로, 무당벌레와 나비를 연상시키는 장식에 도트 무늬를 더해 밝고 화사한 보틀 패키지를 완성했다. 상큼 달콤한 레드베라와 드래곤 프루트에 우아한 자스민 꽃 등이 어우러진 주시 플로럴 부케 계열의 향을 선사한다. 문의 02-3443-1805



클라란스 미크 제이콥스



LIFESTYLE



클럽메드 스키 보너스 나이트 프로모션 클럽메드 리조트는 다가오는 겨울 시즌을 맞아 중국과 일본, 유럽의 스키 리조트에서 '클럽메드 스키 보너스 나이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수준 높은 설원을 자랑하는 일본 홋카이도 시모라와 중국 흑룡강성 아얼과 클럽메드 리조트를 3~6박 예약 시 숙박료를 최대 50% 할인해주며, 최대 3박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이벤트를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하면 3% 추가 할인인 기회를 얻을 수 있다. www.clubmed.co.kr

복 2012 F/W 뉴 컬렉션 모노컬렉션의 정음복 대표와 CJ 오소핑이 만나 탄생시킨 프리미엄 친구 브랜드 '복(bogg)'이 2012 F/W 컬렉션을 위해 영구 브랜드 매시온 확장 전략을 펼친다. 패션은 선보이며 많은 관심을 받은 복은 울기를 민화경처럼 신비로운 육각 조각 및 기 패턴을 적용한 '잉글리시 기', 꽃신을 코리트로 한 꽃신 조각 및 패턴의 '스위트 블라섬' 등 27가지 컬렉션으로 구성했다. 문의 080-000-8000

신세계 헬시 프리미엄 아울렛 가을 프로모션 신세계 헬시 프리미엄 아울렛은 가을을 맞아 다양한 프로모션을 준비했다. 10월 5일부터 14일까지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울기를 트렌드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Autumn Shopping Week' 기획전을 개최하며,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에서는 인기 매장의 상품을 추가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는 인기 브랜드전을 진행한다. 문의 02-2185-1296

렉서스 6세대 뉴 제네레이션 ES 국내 출시 렉서스가 '뉴 제네레이션 ES'를 국내에 출시한다. 렉서스의 라인업 가운데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모델로, 출시 이후 지금까지 1백40만 대 이상의 글로벌 판매를 기록할 만큼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세련된 실내 공간, 뛰어난 승차감에 스포티한 주행 성능, 뛰어난 연비 성능과 친환경성을 가미해 프리미엄 세단의 의 새로운 진화를 보여준다. www.lexus.co.kr

스카로브스키 식스틴 이어링 스카로브스키에서 '식스틴 이어링'을 출시한다. 블랙 & 화이트 크리스탈을 믹스한 삼각형의 드롭형 이어링으로, 이올리가 광고 비주얼에서 선보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심플한 원색 장식의 목걸이와 함께 착용하면 멋스러운 스타일이 완성되며, 캐주얼 룩에 매력적인 포인트 액세서리로 활용할 수 있다. 문의 02-3395-9096

파르미자니아 톤다 1950 파르미자니아 신세 기념화점 기념점 오픈을 기념해 '톤다 1950' 화이트 골드 모델을 선보인다.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과 7.80mm 두께의 케이스로 매일 착용해도 쉽게 질리지 않으며, 시, 분, 초를 볼 수 있는 주요 기능만 탑재해 시간의 기록성을 높였다. 4개의 리그를 따라 만들어 케이스에 부착하는 인체 공학적인 디자인을 반영하고 얇은 무브먼트를 장착해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다. 문의 02-3479-1986

오메가 <스카이폴> 영화 개봉 오메가의 시계가 등장하는 007 시리즈의 새 영화 <스카이폴



스카로브스키 파르미자니아 오메가

JEWEL



J 12
CHANEL

Watch in white high-tech ceramic set with 54 diamonds (~1.4 carat).
Self-winding mechanical movement. 42-hour power reserve. Water-resistant to 50 meters.

www.chanel.com